

석사학위논문

생쥐와 인간

-존 스타인벡-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허성심

2003년 12월

석사학위논문

<요크주해서>

생쥐와 인간

-존 스타인벡-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허성심

2003년 12월

<요크주해서>

생쥐와 인간

존 스타인벡

지도교수 김 원 보

허 성 심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허성심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추인함

심사위원장 _____ □□

심사 위원 _____ □□

심사 위원 _____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3년 12월


<York Notes>

Notes on *of Mice and Men*

John Steinbeck

Heo, Seong Sim

(Supervised by Professor Kim, Won B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3. 12.

목 차

Abstract	ii
1부. 도입	1
존 스타인벡의 생애	
존 스타인벡의 작품	
문학적 역사적 배경	
출판원본에 관한 주석	
2부. 「생쥐와 인간」 줄거리	13
전체 줄거리	
세부 줄거리	
3부. 작품 해설	27
제목	
줄거리와 구조	
주제	
성격묘사	
문체	
4부. 학습 지침	62
세부학습을 위한 지침	
인용구절	
소재의 효과적인 배열	
답안지 계획	
견본 답안	
질문	
이 주해서의 저자에 대해	88
참고문헌	89
후기	91

Abstract

This thesis is the translation of "Notes on *Of Mice and Men*" written by Martin Stephen, which is one of the series of York Notes. *Of Mice and Men*, first published in 1937, is one of the well-known novels written by John Steinbeck along with *The Grapes of Wrath* and *East of Eden*. The novel *Of Mice and Men* is a story about two migrant workers. The novel describes their friendship and dream. Lennie and George, subjects of the novel, are moving around ranches. They dream of purchase their own farmland, but they have to face the reality. Their dream ends up with a tragedy. *Of Mice and Men* made a resounding success at that time and became a bestseller along with Margaret Mitchell's *Gone with the Wind*. It remains as one of the best novels in the American modern literature along with F. Scott Fitzgerald's *The Great Gatsby* and J.D. Salinger's *The Catcher in the Rye*, and it still sells tens of thousands copies every year. Notes on *Of Mice and Men* is providing explanations on John Steinbeck and his works and commentaries on *Of Mice and Men*. The text helps students study and understand John Steinbeck's works, especially *Of Mice and Men*.

1부. 도입

존 스타인벡의 생애

존 어네스트 스타인벡(John Ernst Steinbeck)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샬리너스(Salinas)에서 1902년 2월 27일, 독일계와 아일랜드계 부모의 네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인의 기준으로 보면 부유층으로 보긴 어려웠다. 당시 교사였던 어머니가 폭 넓게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 주기 했지만, 그의 유년시절은 그다지 주목할 만 한 점이 없다. 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빈곤과 인간 본성의 관찰자인 작가로서의 장래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샬리너스의 사람들 사이에 계속 전해졌다. 그러나 이야기 중 대부분은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되는 성공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장된 것이었다. 스타인벡은 샬리너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지에 자주 기고했을 뿐 아니라 스포츠로 약간의 명성을 빛내다가 1919년에 졸업했다.

그 후 스타인벡은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에서 해양 생물학을 전공했다. 그는 평생을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가 쓴 책에서도 이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그의 작품 중 상당수가 자연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스타인벡은 틀림없이 정식 학문과정을 밟는 것보다도 자연과 문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그는 학비를 벌기위해 오랜 기간 동안 학교를 쉬고 일을 해야 했다. 스타인벡은 아주 다양한 임시직 일을 했었는데, 특히 킹시티(King City) 근처의 목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는 사무원, 가게 종업원, 웨이터, 막노동꾼 등 다양한 일을 했다. 그 중 가장 특이한 일은 아마 장교들이

편하게 앉아서 말을 탈 수 있도록 새로 들여온 군마를 길들이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미군이 들여온 반 야생 상태의 말을 데려다가 장교들이 탈 수 있도록 길들이는 일을 했다.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는데 30달러를 받았고, 폴로(Polo) 게임용 말로 훈련시키는데 50달러를 받았다. 이 일을 하다가 다쳐 몇 달 동안 절뚝거리며 다녔다고 직접 얘기하기도 했다. 스타인벡은 평생 말과 개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스타인벡은 스탠포드대학의 교지 스펙테이터지(the *Spectator*)에 여러 편의 단편 소설을 기고했다. 그러나 1925년에 학위도 받지 않은 채 학교를 그만두고는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뉴욕으로 갔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변호사가 되길 원했고, 학위를 받는다면 그는 평생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결심은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그러나 스타인벡은 직업 경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아둔 돈도 없었기 때문에 뉴욕에 가기 위해 상선에서 선원으로 일해야만 했다. 그는 십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그 십년동안 작가가 되고자 하는 그의 결심은 극도로 시험을 받았다.

큰 희망을 품고 뉴욕으로 간 스타인벡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야 했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메디슨가(Madison Avenue)의 한 빌딩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친척의 도움으로 기자가 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 되었다. 그래서 불과 일년 전 뉴욕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화물선에서 뱃삿대신으로 일하면서 뉴욕을 떠났다. 1926년에서 1928년까지 스타인벡은 서해안 지역, 특히 타호호수(Lake Tahoe) 부근에 머물면서 무슨 일이든 닦치는 대로 했다. 어떤 때는 건물 수위로, 또 우편물마차 마부로도 일했으며 지역 물고기 부화장에서도 일했다. 1928년에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캐롤 헨닝(Carol Henning)을 만나게 되었다. 타호호수에 관광객이 왔던 캐롤은 물고

기 부회장 근처에서 스타인벡을 만나게 된다. 이후 캐롤이 근무하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한 스타인벡은 1930년에 결혼하였다.

스타인벡의 첫 소설 『황금의 잔』(*Cup of Gold*)은 일곱 번이나 출판거절을 당하다가 1929년 마침내 출판업자를 만났다. 그러나 해적 헨리 모건 경(Sir Henry Morgan)을 소설화한 이 작품은 실패작으로 끝났다. 이 시기 그의 아버지는 다른 어떤 이 보다 아들이 맑은 정신으로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존과 캐롤이 몬테레이 반도로 거처를 옮기자 아버지는 가족 여름 별장을 무료로 내주었고, 게다가 캐롤의 수입에 덧붙여 생활비에 보태라고 매달 25달러를 주었다. 스타인벡은 『황금의 잔』에 대한 좋은 평도 신통치 않았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다가 신작을 발표할 출판사마저 쉽게 찾지 못해 그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1930년은 스타인벡에게 전환점이 된 시기로 맥킨도시 앤 오티스(McIntosh and Otis)사가 그의 작품 대행회사가 되기로 합의했고 그 후 40년간 이 관계가 유지되었다. 스타인벡은 이 회사에 대해 오랫동안 간직했던 감사하는 마음을 훨씬 뒤인 1962년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표현했다. 노벨 문학상으로 엄청난 상금을 받자 스타인벡은 그 상은 맥킨도시 앤 오티스사가 자신을 위해 따다 준 계약이나 진배없다면서 상금의 일부는 회사에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1932년 그 대행회사는 그의 작품 『천국의 목장』(*Pastures of Heaven*)의 출판업자를 알선해 주었다. 으레 그렇듯이 스타인벡은 친구에게 ‘그들이 그 목장을 누군가에게 팔아먹었다’라는 글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늘 지나칠 정도로 겸손했고, 심지어 경시하기도 했다. 1932년은 스타인벡이 해양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생태학자인 에드워드 리키츠(Edward F. Ricketts)를 알게 된 해이기도 하다. 그는 스타인벡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협력자가 되었

다.

모든 게 스타인벡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후 2-3년간은 행복하지 못했다. 1933년 『미지의 신에게』 (*To a God Unknown*)가 출판되었지만, 대공황이 미국을 강타했고 스타인벡의 출판업자도 재정이 튼튼하지 않아 파산위기에 있었다. 얽힌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부모 모두 중병에 걸려 어머니는 1934년에, 아버지는 1936년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일 년 동안 마비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더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었다. 눈을 감기 전 2-3년 동안 그의 아버지는 몸도 가눌 수 없었고 치매에 걸린 불행한 노인의 삶을 살았다.

스타인벡이 처음으로 성공을 거둔 작품은 1935년에 출간된 「토르티야 대지」 (“Tortilla Flat”)이다. 1937년에 발표된 『생쥐와 인간』 (*Of Mice and Men*)은 상업적 성공 이상의 것을 거두었다. 두 작품 모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특히 『생쥐와 인간』은 연극으로도 공연되어 드라마 비평가상(Drama Critic's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생쥐와 인간』은 이달의 도서클럽(Book-of-the-Month Club)에서 뽑는 이달의 선정도서가 되면서 널리 알려지고 많이 팔리게 되었다. 스타인벡은 여행을 좋아했고, 두 편의 성공작으로 인해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이주 근로자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 이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Wrath*)를 집필하게 되었다. 『분노의 포도』는 1939년에 발표되어 1940년 스타인벡에게 저명한 풀리처 상을 안겨다 주었다. 이 후 영화로도 만들어져 대 성공을 거두었다. 스타인벡은 『분노의 포도』가 출판되기 전에 출판업자들에게 출판부수를 적게 하라고 권했는데 ‘이번은 성공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분노의 포도』는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성공은 했지만 스타인벡의 생활은 거의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금전적인 걱정은 사라졌지만 늘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공인이 되었지만 그런 지위가 가져다주는 아침을 혐오하면서 그런 아침 때문에 소설가로서의 자신의 능력이 쇠퇴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다. 스타인벡은 하루에 75통씩 편지를 받았는데 일부는 그의 작품에 대한 혹평이 담겨 있었다. 한 예로, 레뮤엘 게드베리(Lemuel Gadberry)는 『생쥐와 인간』을 읽고 나서 모욕당한 기분이 들었고 2달러를 사기당해 잃은 것 같다는 글을 보내왔다. 스타인벡 주변에는 그의 서명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어린 시절 그가 알고 지내던 한 여자는 그가 자기 딸의 아버지라고 거짓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고, 이 일로 스타인벡은 큰 고통을 받았다. 늘 외로웠던 스타인벡은 성공이 가져다준 새로운 세계 안에서 평정과 예술가적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무척 애썼다. 그는 그의 작품에, 특히 『분노의 포도』에 쏟아지는 비평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우익 집단과 부농들은 그가 위험한 혁명론자이고, 공산주의자이고, 유대인 동조자, 거짓말쟁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좌익 집단은 그가 감히 불가능한 경제 조건에서도 존엄성과 자존심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혁명을 부인한다고 비난했다. 그를 둘러싼 격론이 심하게 일자 그의 친구이자 극작가인 에드워드 올비(Edward Albee)는 그에게 자살기도를 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글을 보냈다. 스타인벡은 그때까지의 자신의 인생경험을 통해 칭찬보다 비난을 더 쉽게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어서 이러한 위협은 냉정하게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더 개인적인 문제가 스타인벡에게 닥치게 된다. 1940년 할리우드에 머무를 때 그는 그윈돌린 콩거(Gwindolyn Conger)라는 가수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캐롤과의 결혼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많은

번뇌를 겪은 후 그는 마침내 캐롤과 이혼하고 1942년 그윈돌린과 결혼했다. 그 후 그는 캐롤과의 결혼을 11년 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준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는 감정이 격했을 때 흘러나온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인다. 스타인벡은 캐롤과 완전히 연락을 끊지 않고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의 안부를 묻고는 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을 때 캐롤이 가장 먼저 축하 편지를 보내오자 이에 깊이 감동받았다. 불행히도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첫 번째보다 훨씬 짧았다. 그윈돌린은 1944년에 토머스, 1946년에 존, 두 아들을 낳았지만, 1944년부터 남편과 갈등이 일기 시작하더니, 1948년 성격 차이를 이유로 스타인벡과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 초기의 비통함은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해소되었고 스타인벡은 비교적 자유롭게 아들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41년부터 전쟁이 끝나는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에 깊이 몰입한 스타인벡은 정부를 위해 선전 문구를 쓰고,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의 전쟁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앨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이 감독한 영화 ‘구명보트’(Lifeboat)의 대본을 썼는데, 자신의 원본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20세기 폭스 영화사와의 심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1948년은 스타인벡에게 있어 또 다른 고비의 시기였다. 이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절친한 친구인 에드워드 리키츠(Edward Ricketts)를 잃게 되었다. 에드워드는 운전하다 기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사고로 스타인벡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러나 1950년 그는 할리우드에서 일하고 있던 이혼녀 일레인 스콧(Elaine Scott)과 재혼한다. 그녀에 대해서 스타인벡은 “내가 여성과 함께 해서 평온을 느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 세 번째 결혼은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 비평가들과 독자들은 계속해서 스타인벡의 잊혀진 소설들을 재발견하고 그의 작품을 걸작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1943년 이후 발표한 작품 중에서 사실상 세 개의 소설, 「통조림 골목」(“Cannery Row”, 1944), 『에덴의 동쪽』(*East of Eden*, 1952), 『불만의 겨울』(*The Winter of Our Discontent*, 1961) 만이 오늘날까지 널리 읽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인벡은 활기를 잃지 않고, 여러 곳을 여행하였고 미국 정부의 제안대로 러시아와 공산주의 국가들을 방문하였다. 그는 큰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하자 자신도 전쟁 특파원으로 종군하기도 하였다. 스타인벡은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그리고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세 대통령과 남다른 친분을 쌓았고, 자동차 부호와 영화감독과도 친분을 유지했다. 그가 만나고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는 유명영화 배우, 정치가, 공주들도 있었다. 스타인벡은 15세기 영국의 토마스 맬러리 경(Sir Thomas Malory)이 쓴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의 전설 『아서왕의 죽음』(*Le Morte Darthur*)에 매료되었다. 이 전설이 현대 사회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여긴 스타인벡은 이 전설의 현대판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잉글랜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스타인벡은 1962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후, 1968년 심장병으로 사망, 캘리포니아 주 샬러너스에 안장되었다.

스타인벡은 겸손하면서도 외로웠다. 그는 암울한 절망감에 빠져 스스로 평화로운 적이 없었다. 결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않고 늘 다음 단계를 모색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작품을 추구하였다. 그의 편지를 보면 동물과 여행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의 작품이 분명히 보여 주듯이, 그는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그의 내면에는 깊은 인간애, 특히 순박한

노동자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내재해 있었다.

존 스타인벡의 작품

지금껏 몇 년간 사람들이 모이면 유행처럼 스타인벡의 작품에 대해 점잖게 조소하고 스타인벡이 일류작가가 아니라고 비하했었다. 그의 위대함과 작가로서의 위업에 대한 평가를 전문비평가들에게 맡겼더라면, 지금쯤 그의 작품은 읽을 만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류작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비평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그의 열렬한 찬양자들도 그의 소설이 영감을 불러일으켜주지 못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는 감상적인 생각, 한결같지 않은 문체, 감상적 멜로드라마, 혼란스런 사고를 그린다고 비난받아 왔다. 스타인벡은 지역적 소설가로서 자기가 살았던 특정 협소한 지역에 대해서만 글을 쓰는 그래서 한계를 지닌 작가로 묘사되어 왔다. 또한 그의 작품은 독자의 마음을 달래려고만 하지 독자의 기본 선입견을 환기시키거나 독자를 자극하여 사고하게끔 하지 않아 깊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보수주의자들은 그의 작품이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그가 혁명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의 작품에는 진정한 사고가 결여되어 있고, 소설의 내용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인들을 위한 소설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쓰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스타인벡의 작품에 대한 이런 관점이 팽배해지는 것을 막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 첫째로 몇몇 비평가들은 스타인벡이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미국 작가들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더욱 뚜렷한 요인은 독자 대중의 역할로, 이들은 엄청난 양의 스타인벡의 소설을 계속 사서 읽었다. 그의 작품은 거의 모든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되었고, 팬북스사(Pan Books)가 발행한 것과 같이 『생쥐와 인간』의 현대

보급판은 단지 4년 만에 무려 6쇄까지 발행되었다. 아마 독자들의 압도적인 지지의 결과로서 스타인벡은 훨씬 좋은 평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굳힌 것 같다.

스타인벡은 무엇보다도 두 편의 소설,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 1937)과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1939)로 잘 알려져 있고, 그의 작품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분노의 포도』는 필독서이다. 그 외에도 스타인벡은 많은 소설을 집필했는데 어떤 작품도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단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토르티야 대지」("Tortilla Flat", 1935), 「통조림 골목」("Cannery Row", 1945), 『진주』(*The Pearl*, 1947) 등으로 모두 길이가 짧고 읽을 만하다. 중·장편소설 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작품은 아마 『에덴의 동쪽』(*East of Eden*, 1952)과 『불만의 겨울』(*The Winter of Our Discontent*, 1961)일 것이다. 1969년 스타인벡이 사망한 후 출간된 『에덴의 동쪽 집필일지』(*Journal of a Novel: The 'East of Eden' Letters*)도 읽어볼 만한데, 스타인벡이 『에덴의 동쪽』을 집필하는 동안의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이 일지가 소설 『에덴의 동쪽』보다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스타인벡의 작품들은 간결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그러기에는 그의 정신이 도처에 퍼져있다. 그의 작품은 그다지 지적인 놀라움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깊고 변치 않는 동정심을 담고 있다. 그의 문학적 기법에는 사람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구어체와 사투리의 정확한 사용, 상징적·함축적 의미를 지닌 단순한 용어로 자연을 묘사하는 능력, 극적 효과와 점층적 사건 전개에 대한 훌륭한 감각,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긴장과 인간관계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는 능력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가장 위대한 기법은 노동자 숙사이건

이민자 수용소이건 또는 샐리너스 강 위로 흐르는 새벽의 기운이건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일 것이다.

문학적 · 역사적 배경

1920년대의 미국 문학은 종종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의 문학으로 일컬어진다.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은 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로 하여금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물질주의, 사치, 편협함에 대해 혐오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들은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부하고 부적절한 행동 양식에 대한 절대 복종을 거부하고 독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혐오했다. 많은 미국 작가와 예술가들이 고향을 떠나 파리로 가서 미국인 거류지를 형성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잃어버린 세대’ 작가들은 미국 사회에 대해 적대적이고 풍자적이며 반항적이었다. 소설 『배빗』(*Babbit*, 1922)으로 잘 알려진 싱클레어 루이스(Singclair Lewis, 1885-1951)와, 쉬우드 앤더슨(Sherwood Anderson, 1876-1941),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1898-1961) 등이 이 시기의 유명작가들이다. 당시 미국에는 극심한 빈곤이 존재하는 한편 막대한 부유층도 있었다. 월 스트리트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전례 없이 최고치로 치솟고 있었고, 누구나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앞 다퉈 투자와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열풍이 일었다. 1920년대는 또한 폭력단이 기승을 부리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거나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금주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주 조치는 대중들의 알코올에 대한 요구를 전혀 막을 수 없었고, 이런 요구를 채우기 위해 조직범죄가 고개를 들었다. 조직범죄단은 혐오스럽고 비정상적이었지만, 이들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 생겨나는 이민자 거주 지역에 신경 쓰는 유일한 단체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가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당시 성행했던 사치와 부패의 기묘한 혼합을 심도 있게 그린 작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당대의 대작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 1896-1940)이다.

이 모든 것들이 놀랄만한 속도로 변해간다. 1929년 주가가 폭락하고, 그 후 십년간 서구 산업 국가들은 세계 대공황에 휩싸이게 되었다. 상황을 개선시킬 만한 경제적 지식도 전혀 없었고, 일자리를 잃은 방대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나 실직자와 그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했다. 산업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 모든 상품의 수요가 감소했고, 특히 일부 지역에 가뭄이 심하여 농부들은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가뭄 지역의 소작농들은 현대식 영농기술이나 기계가 부족했고, 가뭄과 낙후한 영농 기술로 인해 농지의 표토가 유실되었고, 한때 비옥했던 땅에는 거대한 황진 지대가 생겨나게 되었다. 흉년이 들자 농부들은 처음 농지를 살 때 벌린 돈을 갚을 수 없었고 그 빈약한 수확으로는 그들 자신의 생계도 유지할 수 없었다. 이들은 내쫓기거나 스스로 집을 떠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서부지역으로 향하는 이주의 대 물결에 합류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나 번영과 부를 누릴 수 있다는 소문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 실제 캘리포니아와 그 주변 지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로 넘쳐 났지만, 그곳의 환경은 이주자들이 원래 살던 고향보다도 낫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열악했다. 스타인벡은 이러한 이주 현상을 『분노의 포도』에서 그리고 있다.

1937년경 사태는 호전되어갔다.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침체의 늪에서 나라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고안해냈다. 그는 뉴딜 정책을 통해 수요를 진작시키고 총체적 사회 붕괴라는 현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부실기업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과정은 길고 험난했다. 1930년대의 소설은 1920년대 소설과는 그 경향을 달리하여 경기침체와 그 여파로 생긴 고통을 반영하였다. 분노 대신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고, 풍자적 비난이 아닌 사회적·경제적 붕괴에 대한 원인탐색이 행해졌다. 소설가 제임스 파렐(James T. Farrel, 1904년생)은 시카고의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연작소설로 유명해졌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긴 하지만 『분노의 포도』도 파렐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1897-1962)나 토머스 울프(Thomas Wolfe, 1900-1936)와 같은 작가들은 사회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더욱 지역색을 띠는 작품, 즉 줄거리와 등장인물이 특정지역에 뿌리깊이 바탕을 두는 작품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

스타인벡을 단순히 프롤레타리아 작가군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그가 가난한 서민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는 사회탐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스타인벡은 인간행동의 원인보다도 인간의 실제 행동에 더 관심 갖고 중요시하였다. 스타인벡이 자신의 작품에서 샬리너스 강 주변을 자주 묘사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도 부분적으로는 지역색을 띤 소설가이다. 그러나 샬리너스가 영감의 주 원천은 아니다. 그곳은 한 소설의 배경이긴 하지만,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인간적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원전에 관한 주석

『생쥐와 인간』은 1937년에 런던의 윌리엄 하이네만사(William Heinemann)와 뉴욕의 바이킹 프레스(Viking Press)에 의해 처음 출판되었다.

스타인벡의 작품에서는 원전상의 문제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윌리엄 하이네만(William Heinemann)사와 공동으로
팬북스(Pan Books)에서 발행한 1974년도 판이다. 스타인벡의 다른 열여
섯 작품도 총서로 함께 구입가능하다.



2부. 『생쥐와 인간』 줄거리

전체 줄거리

한 따스한 저녁, 두 남자가 큰길에서 샬리너스 강의 물가로 걸어 내려온다. 조지는 체구가 작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몸이 찻잔 반면, 몸집이 크고 멍한 표정의 레니는 한눈에도 열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인근 목장에서 일하려고 왔는데, 조지는 레니에게 목장에 도착하면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 레니와 관련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었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레니는 조지에게 줄라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를 듣는다. 둘이서 돈을 좀 모으면 작은 농장을 사서 운영할 것이고, 그 농장에서 레니가 토끼와 다른 동물들을 돌볼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둘은 목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폭력적이고 시비걸기 좋아하는 목장주인의 아들 켈리를 만난다. 켈리는 최근에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다. 켈리와 레니사이에 문제가 있을 것에 두려워하던 조지는 레니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난밤에 함께 머물렀던 연못 근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다. 조지와 레니는 슬림이라는 최고참 노새 몰이꾼을 만난다. 그는 타고난 위엄을 지닌 사내였다. 조지는 슬림에게 전에 일하던 워드에서 레니가 강간 누명을 쓰게 되어 자신들이 쫓겨났다고 털어놓는다. 레니는 강아지를 얻게 되고, 농장일꾼인 칼슨은 농장 청소부 노인 캔디에게 그의 늙은 개가 냄새나고 더 이상 쓸모없다며 총으로 쏘 죽게 놔두라고 한다. 개를 잃고 우울해 하던 캔디는 조지가 레니에게 작은 농장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자신도 끼어주면 비용의 반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켈리가 난입해 들어와 레니와 싸우기 시작한다. 난타전을 벌인 후에 레니가 켈리의 손을 짓몽갠다. 슬림은 켈리에게 사고로 기

계에 손을 다쳤다고 말하라고 한다. 어느 날 거의 모두가 근처 읍내로 외출한 저녁, 레니가 농장 마구간에서 일하는 절름발이에 불만투성이인 흑인 크룩스의 헛간을 방문한다. 레니와 캔디는 크룩스에게 농장에 관한 자신들의 계획을 말하지만 켈리의 아내가 들어오는 바람에 말이 끊긴다. 크룩스의 방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크룩스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고발하겠다고 위협한다. 이후 레니는 그 자신의 힘을 얼마나 센지 모른 채 강아지를 죽이게 된다. 레니가 강아지를 마구간 바닥의 짚더미에 묻으려고 하던 차에 켈리의 아내가 들어온다.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그녀는 레니에게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레니의 힘의 강도를 느끼고 당황하게 되고, 레니는 실수로 그녀의 목을 부러뜨리게 된다.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는 레니가 살해범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후이다. 그리고 그를 찾는 수색이 시작된다. 조지는 레니가 평생 감옥에 갇히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그 역시 레니가 농장일꾼들의 손에 맞아 죽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 레니가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 그를 향해 총을 쏜다. 슬림 한사람만이 조지가 왜 이렇게 해야 했는지를 이해한다.

세부 줄거리

『생쥐와 인간』은 장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절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대부분 인쇄본에서도 절과 절 사이에 빈 칸을 두고 있다. 실제 인쇄된 책에서 절이 번호로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절에 해당하는 팬북스 판의 페이지를 함께 표기했다. 각 절의 첫 줄은 학생들이 해당 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첨가했다.

제1절. pp. 7-20: *소울대드 남쪽으로 몇 마을 떨어진 샬리너스 강 ...*

요약: 소설은 소울대드 남쪽 샬리너스강 주변의 시골풍경 묘사로 시작된다. 두 남자가 큰길에서 강가로 걸어 내려온다. 그들은 체구가 작고 피부가 까만 조지와 몸집이 크고 육중한 레니였다. 레니가 강가의 고인 물을 마시자 조지가 야단을 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일터인 인근 목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버스기사가 목적지에 채 못 미치는 곳에 내려준 것이다. 레니는 한눈에도 정신이 모자라 보인다. 조지는 레니에게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던 죽은 쥐를 치우라고 시킨다.

두 사람이 쉬면서 저녁식사로 통조림 콩을 나눠 먹기에 앞서 조지는 레니에게 다음날 목장 주인을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격히 지시한다. 조지는 “만약 주인이 네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놈인지 알게 된다면 우린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한다. 그리고 레니가 죽은 쥐를 몰래 다시 가져오려고 하자 갖다버리라고 시킨다. 그들이 전에 일하던 워드에서 레니는 한 여자의 옷을 만지작거리어서 그 여자를 놀라게 했고 그래서 강간 혐의까지 쓰게 되었다는 과거가 드러난다. 조지와 레니는 관개수로에 숨었다가 그곳에서 도망쳐야 했다. 조지는 레니에게 “이 미친놈아. 넌 항상 날 곤란하게 만들어.”라고 화를 내지만, 곧 화가 누그러진다. 해가 지자 조지는 레니에게 전에도 몇 번이고 한 이야기를 해 준다. 레니도 거의 암기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조지로부터 다시 듣고 싶어 한다.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의 꿈에 관한 것으로 몇 에이커 땅을 사서 자신들의 동물을 기르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농장에 토끼를 들여 놓을 것이고 레니가 이 토끼들과 다른 동물들을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꿈 이야기로 자신들을 달래면서 두 사람은 잠에 빠진다.

해설: 이 소설의 제1절에서 스타인벡은 두 가지 다른 문체를 보이고 있다. 첫 단락은 강력하고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묘사형식으로 초록, 노랑, 황금색, 흰색 등 자연경치에서 볼 수 있는 단색과 자연에 서식하는 동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마뱀, 너구리, 토끼, 개, 사슴 등 다섯 종류나 되는 동물들이 그 짧은 단락에서 언급되었다. 초록색을 띠는 것은 나뭇잎이 아니라 나뭇잎의 밑동이라고 묘사하듯이 간단하지만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다. 스타인벡은 사슴의 발자국이 굽이 갈라진 썰기 모양이라는 것까지도 묘사해내고 있다. 스타인벡의 또 다른 우수한 기법은 직접화법이다. 그가 사용하는 철자는 등장인물의 어조와 억양을 생생하게 나타내주는데, 어조와 억양이 스타인벡의 말투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두 인물 모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말하는 방식을 보면 그들의 본성을 알 수 있다. 조지는 빠르게 거침없이 말하는 스타일로 때로는 불규칙한 리듬이 급하고 적극적인 그의 성격을 나타내준다. 게다가 그는 늘 의심하는 사람이다. 반면, 레니는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자주 말을 중단하거나 반복함으로써 그가 단순한 사람임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레니는 “내 기억엔.... 그러나.... 그럼 우리 뭘 해야 하지? 어떤 여자들이 들렸었는데, 니가 말했지... 니가 말했지....” 라는 식으로 말한다. 레니는 몸집이 크고 단순한 동물처럼 본래 선한 사람이지만 자칫하면 겁먹어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스타인벡은 독자들에게 레니의 이런 본성을 직접 말해주지 않고 동물의 외모와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레니를 묘사함으로써 그러한 점을 연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레니를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의 다리와 발은 곰의 그것처럼 묘사되고, 그의 손은 동물의 앞발처럼 그려지고 있다. 또한 그는 말, 잉어, 테리어개에 비유되고 있다. 테리어개의 이미지는 조지와 레니사이의 주종관계를 나타내준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는 지금까지 연상되는 레니의 큰 몸집에 대한 개념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

에 아마도 제1절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워드에서 레니는 겁에 질려 한 여자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매달리게 되고, 이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는 자신의 힘의 강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쥐와 다른 조그만 동물들을 죽이게 된다. 어떤 비평가들은 이 대목이 소설의 끝부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너무 분명히 암시하고 있어 소설의 긴장감을 모두 없애고 있고, 따라서 서툴게 독자에게 다음 사건의 암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제3절에서 좀 더 잘 다뤄진다. 소설의 도입부에서는 소설 전체의 중심 내용인 조지와 레니가 꿈꾸는 작은 농장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만한 점은 스타인벡의 분위기 만드는 방식으로, 그는 자연환경에서 정선된 세세한 부분을 정성들여 묘사함으로써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따뜻한 색상과 부드러운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묘사됨으로써 독자에게 평온과 만족감을 준다. 소설의 말미에서 스타인벡은 더 강력하고 잔혹한 세계를 암시하려고 하면서, 도입에서 묘사되었던 부분 중에서 단지 한 부분만 바꾼다. 소설의 시작부분에서 한가로이 물가에서 헤엄치던 물뱀이 소설 끝부분에도 여전히 연못에 남아 있다. 그러나 그때 주인공이 이 뱀을 물 밖으로 낚아채 무자비하게 먹어 치운다. 이 한 부분의 변경으로 전체 묘사의 분위기가 충분히 바뀌게 되고, 우리는 레니가 조지에게 총살당할 거라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이는 앞부분의 묘사에서 조지가 별이 보이는 들판에 누워서 잠자려고 할 때 그가 느낄 평온과 만족감을 추측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제2절. pp. 20-37: 인부 숙사는 긴 직사각형 건물이었다.

요약: 조지와 레니는 농장 건물을 청소하는 노인 캔디의 안내로 숙소로 간다. 레니는 전에 머물던 사람들로 인해 숙소가 이로 들끓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캔디가 안심시켜 준다. 들은 목장 주인을 만난다. 주인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으로 그의 유일한 약점으로 보이는 것은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 농장 마구간을 관리하는 흑인에게 화를 낸다는 점이다. 그는 조지와 레니를 의심쩍어 하지만 결국 농장 일을 잘 할 것이라 여기고 만족한다. 주인 아들인 켈리가 숙사로 들어오자마자 레니와 시비를 벌인다. 켈리는 전 경량급 권투선수로 사람들에게 늘 싸움을 건다. 게다가 얼마 전에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충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신경이 더 과민해 졌다. 조지는 레니와 켈리 사이와 불화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레니에게 경고하며 만약 레니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자며 그 장소를 다시 확인시킨다. 켈리의 아내가 남편을 찾으러 왔으며 인부 숙사로 들어오자 레니는 그녀에게 매료된다. 그 다음 조지와 레니는 타고난 위엄과 권위를 지닌 노새몰이꾼 대장인 슬림과 목장 인부인 칼슨을 만난다. 칼슨이 슬림네 개가 전날 강아지를 낳았다고 말하며, 강아지 한 마리를 캔디에게 줘서 그의 냄새 고약하고 노쇠한 개를 총을 쏘아 없앨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켈리가 다시 인부 숙사로 들어오고 조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더욱 확신한다.

해설: 이번 절의 주요 기능은 농장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독자들에게 더 확실히 소설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레니가 어떤 식이로든 켈리와 그의 아내와 연관된다는 것을 독자들은 알 수 있다. 슬림은 타고난 지도자로 그려지고 칼슨은 잔혹하고 피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진다. 가장 흥미를 끄는 인물은 캔디이다. 스타인벡은 그 특유한 방식대로 캔디의 성격을 그의 애완건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주인과 마찬가지로 그 개는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희망을 잃은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다. 캔디라는 인물을 그림으로써 스타인벡은 소외받는 계층과 무능력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숙사에 이가 있나 검사하는

장면을 통해 조지의 신체적적 청결함을 강조하며, 동시에 켈리가 장갑에 바셀린을 발랐다는 소리를 듣고 감정이 격해지는 장면을 통해 조지의 정신적 청결함까지도 강조하고 있다. 스타인벡의 유별나지만 효과적인 이미지 묘사 재능은 여자의 머리를 ‘소세지같은 조그맣게 말아 올린 묶음’이라고 그리는 장면에서 발휘된다.

제3절. pp. 37-61: 비록 석양의 광채가 비추었지만...

요약: 해질 녘 인부 숙사, 슬림은 강아지 한 마리를 레니에게 주고 조지와 얘기를 나눈다. 조지는 왜 자기가 레니를 돌봐야 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위드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슬림에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레니는 한 여자의 옷감을 만졌고 그 여자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자 당황하여 옷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 여자는 레니를 강간죄로 고소해버렸고, 그들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관개수로에 하루 종일 숨어 있어야 했다. 레니는 강아지를 데리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만 조지를 이를 말린다. 칼슨은 캔디의 늙은 개의 냄새를 견딜 수 없어서 그 늙은 개를 없앨 수 있도록 강아지 한 마리를 캔디에게 주라고 슬림에게 청한다. 그러나 젊은 인부 한명이 슬림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서부 잡지에 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 쓴 편지가 실렸다면 잡지를 보여주는 통에 그 결정은 잠시 뒤로 미루어진 다. 캔디는 칼슨이 자신의 늙은 개를 데리고 가 없애는 것을 마지못해 허락하고는 무척 마음상해 한다. 조지와 목장 인부 위트는 토요일 밤이면 찾는 인근 갈보집 수지의 집에 대해 말하다가 켈리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켈리가 갑자기 들어와서 슬림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아내와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황급히 나간다. 그 다음 레니가 들어오고, 조지와 함께 자신들이 갖게 될 조그마한 농장에 대해 큰소리로 그려내기 시작한다. 캔디가 귀 기울이다 갑자기 자기도

끼어도 되는지 물어 본다. 캔디에게는 350달러 저축해 놓은 것이 있었다. 그 때 슬림과 컬리가 들어와서 그들은 꿈에서 깨어난다. 슬림은 컬리가 자신을 오해하며 비난한 것에 무척 화나있었다. 컬리는 레니에게 눈을 돌려 그를 심하게 공격한다. 조지의 명령을 듣고 레니는 컬리의 손을 붙잡아 으깨어 버린다. 슬림이 컬리에게서 그의 손은 기계에 끼어 다치게 된 것이라고 말하라고 약속받아내고, 그 후 컬리는 병원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레니가 비난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해설: 이 절에서 사건의 주요 절정이 처음 나타나는데, 즉 컬리와 레니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로 끓어오르게 된다. 레니를 쏘 때 사용하게 되는 독일산 루거 권총에 캔디의 늙은 개가 죽게 되는 장면을 통해 이 소설의 마지막 절정이 암시된다. 위드에서의 그 빨간 드레스에 얽힌 이야기와 레니가 묵묵히 컬리의 손을 으깨는 장면은 마구간에서, 컬리의 아내에게 벌어질 일에 대한 암시를 준다. 레니와 조지가 꾸는 꿈에 대한 진상이 바르게 조명되고, 그 실현 불가능성이 강조된다. 조지, 레니, 캔디 세 사람이 정말로 작은 농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들 자신을 설득하는 바로 그때, 그들 세계에 잔인한 현실이 주입된다. 컬리가 레니에게 까닭없는 공격을 가하고, 그 결과는 현실 세계가 그들이 꿈꾸던 세계보다 더 잔인하고 혹독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꿈이 이 사건으로 완전히 산산 조각나는 것은 아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슬림에 의해 회복된다. 그러나 독자들은 소설 마지막 절에 가서 이 꿈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암시를 받는다. 또한 슬림이 조지를 영리한 꼬맹이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자들은 조지의 본성과 그가 레니 곁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를 간파할 수 있다.

지금은 레니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심한 장난을 치던 것을 그

만두였지만, 조지는 레니 옆에 있으면 우월감을 느낀다고 인정한다. 이 절에서는 고독이 주요 주제로 강조된다. 이 고독이 조지가 레니와 함께 지내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고, 슬림이 묘사하는 목장 인부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캔디의 삶에 늘 따라 다니는 것이기도 하다. 한 서부 잡지에 실린 전 목장일꾼의 편지로 생긴 사람들의 흥분은 조지와 레니만이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농장 일꾼들은 이런 잡지를 비롯하지만, 은근히 그 잡지속의 이야기들을 믿으면서 싸구려 잡지속의 낭만적이고 흥미로운 인물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바라는 삶에 대한 꿈을 키운다. 스타인벡의 묘사에서 빛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처음에 슬림과 조지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분위기는 인부 숙사를 비추는 어두운 전등의 불빛에서 파생된다. 스타인벡이 사창가, 창녀, 성병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히 다루는 섬세함도 언급돼야 할 것이다. 외설스럽고 추잡하고 메스껍기 쉬운 이런 이야기도 스타인벡의 손을 거치면 자연적이고 대부분의 건전한 남자들이 누리는 평범한 삶의 일부로 바뀐다.

제4절. pp. 61-75: *마구간 지기 흑인 크룩스는 마구 창고에 자기 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요약: 레니가 크룩스의 방으로 걸어 들어간다. 레니의 순진함에 크룩스는 처음에 가졌던 적대감을 거둔다. 레니가 조그만 농장을 살 계획을 털어 놓자, 냉소적인 크룩스는 다른 인부들과 읍내로 간 조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일로 레니를 놀린다. 크룩스는 레니의 반응에 무서워하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털어 놓는다. 캔디가 크룩스의 방으로 들어온다. 두 사람이 같은 목장에서 일하면서도 캔디가 크룩스의 방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캔디는 조지와 레니와 함께 사려고 하는 농장에 대해 말한다. 크룩스는 이런 생각에 조소를 퍼부었지만, 곧

그 꿈에 거의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농장을 사게 되면 자기도 그 농장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켈리의 아내의 등장으로 그의 말이 끊긴다. 방에 있던 사내들은 화가 났고 그녀의 출현으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녀는 켈리의 손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를 물어 보지만 바른 대답을 듣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말하다가, 결국 캔디로부터 그곳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 크룩스도 그녀에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강간죄로 그를 고발하겠다는 그녀의 협박에 곧 입을 다문다. 그녀는 남편을 미워한다고 고백한 후에야 자리를 뜬다. 조지가 레니를 찾으러 들어오고, 크룩스는 조지와 레니, 그리고 캔디와 함께 하겠다던 말을 취소한다. 그러자 세 사람은 크룩스의 방을 떠난다. 크룩스 역시 그 꿈에 빠져 있었지만, 켈리의 아내의 손에 달린 그의 처지 때문에 그는 현실로 되돌아 와야만 했고, 그런 현실이 그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해설: 이 절은 크룩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흑인인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세계에서 존엄성과 자존심을 애처롭게 추구하는 그의 모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크룩스는 몸이 불구이긴 해도 영리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켈리의 아내처럼 하찮은 사람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녀는 별 어려움 없이 크룩스를 비굴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하락시킬 수도 있는 여자다. 이 절에서 독자들은 그녀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그녀 역시 고독한 사람이며, 유랑극단에 들거나 영화계에 이름을 떨치는 애처로운 꿈도 가지고 있다. 이번 절에서 그녀의 꿈 역시 산산조각난다. 꿈을 기억하는 동안 캔디와 크룩스는 잠시 그녀에게 대항하지만 얼마 가지 않았고, 삶의 현실이 다시 그들을 억누른다. 이 절에서는 고독이라는 주제와 캔디와 크룩스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제4절에서 이야기가 다소 잔잔하게 흐르다가 마지막 두 절에 이르러 주요 절정에 달하게 된다.

제5절. pp. 75-88: *큰 헛간 한 편에 햇건초가 높게 쌓여 있고....*

요약: 레니가 헛간에서 잘못하다 죽인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다. 마당 밖에서는 사람들이 말편자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다. 따분하고 안절부절 못한 켈리의 아내가 헛간으로 들어온다. 조지의 충고를 상기하고는 레니는 거부했지만 켈리의 아내는 굳이 레니 옆에 앉아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녀는 15살 때 유랑극단에 들어가서 배우가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댄스파티에서 만났던 한 남자를 상기한다. 그 남자는 그녀를 영화에 출연시켜주고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녀는 약속한 편지를 받지 못했다. 어머니가 편지를 숨겼을 거라 믿은 그녀는 분풀이로 집에서 나오기 위해 켈리와 결혼해 버렸다. 레니는 계속 토끼에 대해 생각한다. 레니가 부드러운 것을 쓰다듬는 것을 좋아한다고 인정하자 그녀는 그에게 자기 머리카락을 만지라고 말한다. 그가 너무 거칠게 만지자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레니는 그녀를 붙잡는다. 그녀가 계속 비명 지르자 레니는 그녀의 몸을 흔들고 잘못해서 그녀의 목을 부러뜨린다. 레니는 문제가 생기면 숲 속으로 피신하라고 한 조지의 말을 생각해 내고는 기어서 그곳을 빠져나간다. 캔디가 시체를 발견하고는 조지에게 보여 주며 레니의 짓일 거라 추측한다. 조지와 캔디는 이로 인해 꿈이 박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조지는 살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숙사로 돌아간다. 캔디는 다른 인부들에게 시체에 대해 말하고, 슬림은 그녀의 목이 부러졌다면서 레니의 짓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모두 엽총을 들고 레니를 찾기 시작한다. 비록 칼슨이 살펴보고 와서 켈리가 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가 레니를

쏘아 죽이려고 할 것은 거의 확실했다.

해설: 이 절에서 끔찍한 사건의 절정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 불가피성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설명적인 구절이 거의 없고 간결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독자들이 소설 도입에서부터 켈리 아내의 죽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암시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의 도입 부분에서의 헛간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풍부하고 명암 묘사에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 절에서 두 가지의 강한 아이러니를 볼 수 있다. 첫째, 살인이 일어나기 전 두 사람의 대화에서 켈리 아내와 레니는 적어도 한 가지 면에 있어서 비슷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즉 둘 다 목장과 헐리우드 스타라는 이를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 운명을 지녔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칼슨의 루거 권총에 관한 것이다. 나중에 알겠지만 조지는 레니를 안락사 시켜야 할 때를 대비해 이 총을 훔친다. 그러나 조지가 총을 훔침으로 해서 레니가 총에 맞아야 하는 운명이 더 확실해진다. 레니를 찾는 수색꾼들은 레니가 권총을 가져갔으며 그래서 그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레니를 생포하려고 하지 않고 그에게 총을 쏘려고 한다. 조지의 예방조치가 오히려 레니의 죽음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켈리 아내가 죽는 실제 순간은 훌륭하게 절제되어 표현된다. “그러자 그녀가 잠잠해진다. 레니가 그녀의 목을 부러뜨린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른 단락은 비난을 받았다.

종종 그러하듯이, 순간이란 정지했다가 계속 유지되다가, 그리고는 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순간보다 훨씬 더 훨씬 오랫동안 소리도 멈추고 움직임도 멈췄다.

어떤 비평가들은 이런 문구가 지나치게 시적이며 호화스런 문학구절로서 스타인벡이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개인의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문체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구절이 매우 효과적으로 끔찍한 순간의 정적을 온전히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제6절. pp. 88-95: 켈리너스의 강의 깊고 푸른 물길이 고요히...

요약: 레니는 강가 근처의 공터에서 조지를 기다린다. 그는 자기를 나무라는 클라라 아주머니의 환영을 본다. 그 때 환영은 커다란 토끼로 변하고 토끼는 레니에게 조지가 그가 한 일을 알게 되면 그의 곁은 떠날 것이라 말한다. 레니는 조지를 찾으며 울고 그때 조지가 숲 속에서 나타난다. 조지는 빠르게 그리고 차분하게 레니에게 말을 하고, 둘이 잘 알고 있는 꿈 이야기를 딱딱한 목소리로 강세 없이 반복한다. 수색꾼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조지는 레니에게 자기들이 구입할 농장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 강 너머를 보라고 말한다. 그는 칼슨의 권총으로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은 레니의 뒤통수를 쏜다. 켈리, 칼슨, 슬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다. 슬림만이 조지의 마음이 어떨지 이해한다. 슬림과 조지는 다른 이들을 뒤로 한 채 술 한잔 마시러 큰길을 따라 걸어간다.

해설: 이 마지막 절을 반전이라고도 부른다. 레니가 붙잡혀서 당국에 넘겨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결여되어 있고 스타인벡이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또한 조지가 너무 능숙하고 쉽게 방아쇠를 당겨서 결말이 수궁이 안 가기 때문이다. 3부에서 다루기 되겠지만 사건의 진실이 뭐든지 간에 이

소설이 취하고 있는 결말은 잘 짜여져 있고 극적이다. 소설의 흐름상 보면 레니, 켈리, 그리고 그의 아내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결말부분도 불가피해 보인다. 논란이 되는 다른 부분은 조지, 레니, 캔디 세 사람이 꿈에 그리던 농장을 구입하는 것이 완전히 합당하고 가능한데도 왜 그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지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비평가들은 인간은 지루하고 때로는 혹독한 삶을 사는 자신들을 꿰뚫어보기 위해 꿈이 필요하며 그렇지만 이런 꿈은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한다는 이 소설의 주제를 간과하고 있다. 이 마지막 절에서 자연 환경의 평온과 아름다움이 레니 죽음의 무자비함과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주인공이 창으로 물뱀을 찔러 죽이는 장면을 조심스레 삽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자연에서는 평화와 폭력이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 절에서도 스타인벡은 특정 묘사기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동물을 묘사하듯 레니를 묘사하고 묘사구절에서 빛을 주요 요소로 삼는 것은 특이하다. 소설 전체에서 가장 정교한 이미지 중 하나는 조지가 레니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양이 개빌란 산맥에서 붉게 타오는 장면이다.

3부. 작품 해설

제목

이 소설의 제목은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즈(Robert Burns, 1759-96)의 시 “생쥐에게”(“To a Mouse”)에서 따온 것이다.

생쥐와 인간의 가장 잘 짜여진 계획은
자주 어긋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만을 남긴다
약속한 기쁨 대신에

번즈는 인간의 꿈과 계획은 종종 어긋나게 되고 기쁨 대신 어려움과 고통만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조지와 레니의 계획도 이렇게 된다. 번즈는 시 속의 쥐를 통해 인간이 운명과 숙명의 힘에 대항해서 싸우게 될 때 얼마나 왜소하고 무력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느낌이 스타인벡의 작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소설 『생쥐와 인간』의 시작부분부터 조지와 레니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고 그들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해 좌절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번즈가 생쥐를 언급하는 것이 레니가 생쥐를 좋아하는 것과 특별한 연관은 없다.

줄거리와 구조

『생쥐와 인간』에 관한 어떤 평론들은 이 작품이 긴 단편인지 짧은 장편 소설인지 혹은 중편소설인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 작품의 기본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책에 어떤 이름이 부여되는 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무익하다.

이 작품의 기본 구조는 간단하다. 여섯 절로 구성되어 있고,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장과 인부숙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배경과 내용면에서 각 절마다 서로 구별된다. 스타인벡이 각 절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는 뻔한 일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장을 구분 지으며 작품을 써야 한다는 규칙이나 규정도 없고, 산문체 소설을 쓸 때의 규약을 만든다고 해서 『생쥐와 인간』에도 그런 규칙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소설장르에 일말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작가들은 틀림없이 작품의 구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인벡에게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는 또 다른 이유는 소설 내용을 장으로 나누면 불가피하게 독자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생쥐와 인간』은 구조가 탄탄하고 경제적이며 사건전개가 빠르므로, 장으로 나눈다면 흐름이 끊길 수 있고 작품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소설에는 등장인물들이 무자비하게 비극의 길에 놓여져 있다는 불가항력적인 느낌이 담겨 있는데, 장으로 구분되었다면 이런 느낌이 사라졌을 것이다. 마지막 절의 배경이 다시 첫 절의 배경으로 되 돌아온다는 이야기의 순환성에 의해 이런 불가피성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는 조지와 레니가 여행을 떠났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결국 출발점으로 되 돌아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 관계의 파국일 뿐이다. 조지와 레니는 옮겨 다니며 바꾸려고 시도하지만 레니가 지닌 한계 때문에 두 사람은 원점으로 되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한번 모든 희망과 기대감을 거스르게 된다. 절묘하게도 그들에게 남은 행로는 레니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반전뿐이었다.

스타인벡은 두 가지 이유로 비난을 샀었는데, 첫째는 이야기의 불가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 소설의 결론에 대한 암시를 세련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부

분에 암시가 제시되어 있다. 레니가 생쥐를 죽이는 장면, 위드에서의 일
에 관한 이야기, 컬리와 의 다름, 강아지의 죽음, 강조되는 레니의 강한
힘, 컬리 아내의 레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컬리의 아내는 지나칠 정도로
성적 매력을 풍기며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종종 반복 강조하는
조지의 주장, 이 모든 것들이 레니가 그 여자를 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암
시하고 있다. 이런 암시들은 두 가지 비난을 낳고 있다. 그 첫째 비난으
로, 독자들은 긴장감을 모두 잃고 소설의 결말을 너무 초기 단계에서 알
아버린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생쥐와 인간』이
탐정소설이어서 독자가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야 진실을 알아야 한다면 이
런 비난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이 소설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 오히려
이 소설은 인물연구에 관한 것이며, 긴장감이라는 매개를 통해 독자의 관
심을 사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 많은 문학 작품은 결말을 일부러 감
추려 하지 않는다. 특히 비극을 보러가서 연극의 중반부에 이를 때까지
비운의 주인공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타인벡이 독자에게 결말에 대한 암시를 서툴게 제시
하고 있다는 두 번째 비난은 무시하기가 좀 더 어렵다. 이 관점은 독자가
소설의 결말을 추측해 본다고 해서 손해 볼 것 없다고 하면서도, 독자들
이 암시 방식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된다고 불평하고 있다. 독자들이 자신
들의 반응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앞으
로 전개될 일을 암시하는 것이 작가의 좋은 기법이다. 독자는 지금 어떻
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를 알
아야 하기 때문에 독자가 인식하게 되는 기법은 좋은 기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마치 스타인벡이 갑자기 소설 밖으로 나와서 그가 가는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 스스로없이 독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관해 비평가들은 그저 다양한 대답만 제시할 것이다. 결국

줄거리의 이런 면이 불쾌하고 세련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소설 전체의 문맥상 타당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단순하지만 기교적이다. 깊은 연못 부근에서의 일련의 장면을 통해 독자들은 조지와 레니가 목장이라는 다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스타인벡은 소수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두개의 배경만을 사용함으로써 소설의 구조와 내용을 상당히 직선적으로 그리고 있다. 많은 현대소설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이 소설도 시간을 건너뛰거나 거슬러 가거나 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생쥐와 인간』의 줄거리와 구성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가볍게 보아 넘겨져서는 안 된다. 스타인벡의 기법은 별 힘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솜씨이다.

주제



문학 작품의 주제란 작가가 집필과정에서 주장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확대시키기 위해 고찰하는 특정 아이디어를 말한다. 주제는 주인공과 구분되어야 한다. 『생쥐와 인간』에서 주인공은 조지와 레니이지만, 주제는 고독, 꿈 그리고 노동자이다. 저자가 주인공들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서 이런 주제가 강조되고 밝혀진다.

아메리칸 드림

『생쥐와 인간』에서 스타인벡이 제시하는 주제중 하나는 인간의 꿈이다. 물론 조지와 레니의 꿈이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데, 그들의 꿈은 아주 강력해서 나중에 캔디를 끌어 들이고 잡시나마 냉소적인 크룩스의 관심을 사기도 한다. 그 꿈은 아주 소박하다.

“한 10에이커 쯤 될 거야” 조지가 말했다. “조그만 풍차도 있고, 그 위에 작은 통나무집과 닭장도 만들 거야. 부엌도 있고, 과수원엔 체리, 사과, 복숭아, 살구, 도토리를 심고, 그리고 딸기도 좀 있어야 할 거야. 사료로 쓸 콩 심을 자리도 만들고 밭에 델 물도 충분히 있어야 하겠지. 돼지우리도 만들고 말이야.....”

이런 꿈은 수천 명의 떠돌이 노동자들이 꾸는 꿈이지만, 이들 중 꿈이 이루어지리라 희망을 갖는 이는 거의 없다. 크룩스가 이 점을 잘 말해준다.

“바보 같으니”. 크룩스가 비웃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엔 짐을 지고 머릿속엔 그런 빌어먹을 생각을 품은 채 농장에 오는 것을 봐왔어. 수백 명이 왔다가 금방 가버리지. 모두들 작은 땅 한 조각을 생각하지. 나는 여기서 많은 책을 읽었어.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땅을 갖지도 못해. 그저 머릿속의 생각에 지나지 않아. 늘 땅에 대해서 말하지만 머리 속에나 있는 것이야.”

이 소설에서 조지와 레니만이 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켈리의 아내 역시 조지와 레니와는 그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과 같은 목적을 지닌 꿈을 갖고 있다.

“영화에 출연할 수 있을 거야. 멋진 옷도 입고 말이야. 배우들이 입는 그런 멋진 옷이지. 고급 호텔에 들어 갈 수도 있겠지.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말이야. 영화 시사회를 하면 라디오 출연도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영화배우이니깐 돈 한 푼 안 들겠지. 그 멋진 옷들도 입을 수 있을 거라구.”

심지어 가장 평범한 목장 노동자들도 싸구려 잡지를 읽으면서 그 잡지에 실린 서부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꾸다. 스타인벡은 평범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이런 꿈을 꾸다고 말하고 있다. 종종 그들의 삶은 지루하고 불만족스럽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의해서 지위나 존경심, 의무이행 등을 거부당하고 있다. 그들은 그물에 걸려 있어서 꿈이라는 환상의 세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그 꿈속에서 생각을 펼칠 수도, 어둠의 시간동안 한 생각에 집착할 수도 있으며, 평온과 위안을 받으며 언젠가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조지와 레니의 꿈은 이런 것보다 더 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사고의 중심 개념까지 나타내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에는 서부 변경지역이 있었다. 미국으로의 이주가 초기에는 동부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주민 정착지역이 점차 확대되어 마침내 서부와 태평양 연안까지 뻗어 나가게 되었다. 역사가들은 수백 년 동안 서부개척이라는 개념이 미국인의 사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은 서부경계선을 넘어서는 개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서부경계선 너머에는 손에 쥐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수천마일의 땅과 흥분과 모험으로 가득찬 삶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도시생활 혹은 현대 생활에서 얻은 걱정거리와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서부개척지에 사는 사람은 자유인이었고 독립된 개체였다. 서부 개척이 실제로 이 같지는 않았겠지만 서부개척이 ‘아메리칸 드림’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비록 많은 인구가 서부개척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위안과 안심을 주었고, 이런 점에서 이 지역은 안전 벨트와 같은 곳이다. 1900년대가 되자 서부개척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개척자들이 태평양지

역까지 정착했기 때문이다. 미국사회는 이제 미국이 문명화 된 개척국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과거에 그랬던 방식으로 문학과 영화 속에 서부개척의 신화를 뿌리 깊이 심어 놓고 있다. 미국 전설의 주인공들이 모두 서부 개척자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설적인 서부 개척 전사인 대비 크랏킷과 대니엘 분, 인디언과의 싸움에서 사망한 유명한 인물인 쿠퍼 장군,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있다. 미국사회는 마치 인간이 여전히 자유롭게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단순한 기계의 톱니 중 일부가 아니라 진정한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책으로 개척신화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지와 레니의 꿈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고, 그들의 꿈이 본질적으로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의 변형이기 때문에 목장 일꾼사이에 그 꿈이 왜 인기가 있는 지 알 수 있다. 그들이 꿈꾸는 십 에이커 짜리 목장은 서부 개척지와 그다지 비슷해 보이지는 않지만, 자연과의 친화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같다. 조지와 레니는 실제 자신들이 심은 작물에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 것이고, 원한다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시간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주인이며 자유를 지닌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생쥐와 인간』이 각별히 미국적인 소설처럼 보이고 다른 나라의 거주자와의 연관성은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레니와 조지의 꿈은 미국적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보편적인 것이다. 기관사나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갖고 있는 꼬마, 더 많은 소나 돼지가 있어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꿈꾸는 농부, 은퇴 후 바닷가 저택을 갖기를 꿈꾸는 나이든 중상층 사업가, 이들 모두가 본질적으로 자유와 개인적 충족감이 결합된 삶이라는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레니와 조지의 꿈은 미국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회 안에 갇혀있고 압박 받는다고 느끼는 모든 이에게 분명한 메시

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인벡은 꿈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꿈이 목살되거나 산산조각 나는 것도 보여 주고 있다. 그 무너지고 있는 꿈이 원대한 꿈이 아니라 그저 십 에이커의 농장과 동물 몇 마리에 관한 아주 소박한 꿈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 소설은 보다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된다. 조지와 레니가 열망하는 바로 그 자유가 레니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레니가 조지와 함께 다소 자유의 제약이 있는 사회에서 떠돌아다니도록 허용할 게 아니라 애초부터 레니를 감옥에 가두거나 적어도 특별 학교로 보내야 했었다. 레니가 자신의 죽음을 불러오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조지와 레니가 지닌 자유이다. 사실, 모든 것이 소설의 종말에 가서 파멸되는 것은 아니다. 소설 전반에 걸쳐 그들이 꿈꾸는 농장은 일련의 특정 가치와 순수하고 깨끗하며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총 쏘아 레니를 죽이려는 조지의 결심을 순수하고 깨끗한 결정으로 그리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사실 같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레니가 잡혔다면 잔혹하게 살해되거나 감금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레니는 고통 없이 행복감에 젖은 상태에서 그에게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죽는다. 레니는 아마도 그가 꿈꾸는 농장에서 맞이할 수 있는 죽음처럼 자연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얻는다. 농장이 나타내는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에 관한 배려이다. 이런 배려로 인해 아무도 위협받아서 일하거나 탈진할 때 까지 노역을 강요당하거나 하지 않는다. 조지가 레니를 쏜 이유는 그의 대한 배려 때문이다. 슬림이 말하듯이 “사내라면 때때로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지의 손에서 즉사하는 것은 레니가 한 일에 비추어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호의적인 일이다.

스타인벡은 꿈을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있다. 시간에 따라 아주 감동적

이었다가 애처로운 꿈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가능성 있게 그려지다가 그저 소망으로 그치기도 한다. 스타인벡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깔끔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을 신중하게 피하고 있다. 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 독자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말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꿈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스타인벡의 의견으로 보면, 인간이 삶을 진실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부인하고 있지만 꿈은 늘 존재해 왔다. 꿈이 좋다 나쁘다 주장하는 것은 소설의 후반에서 물뱀을 죽이는 주인공을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 둘 다 삶과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인간이 이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 거의 불필요하다는 것은 지당하다.

따라서 『생쥐와 인간』이 비관적으로 쓰인 책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적어도 말이 지닌 관습적 의미로 봤을 때 분명히 불행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비관적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조지의 레니에 대한 보살핌과 동정, 레니의 조지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슬림의 타고난 위엄 등이 담겨 있다. 스타인벡은 레니와 조지가 꾸는 것과 같은 꿈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사람들은 이런 꿈을 추구하면서 꿈 그 자체만큼이나 순수하고 숭고한 감정과 생각을 창조해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생쥐와 인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선과 악,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사이의 균형에 있다. 스타인벡이 한쪽 혹은 다른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그가 놀라거나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삶이란 흑도 백도 아닌, 어느 한쪽 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골고루 섞여서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

고독은 『생쥐와 인간』의 또 다른 주제이다. 모든 인물 중에서도 조지가

이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표력하고 있다.

“우리처럼 목장에서 일하는 일꾼이야말로 말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야. 가족도 없고 머물 만한 곳도 없지. 목장에 와서 일해 돈 모으면 읍내에 가서는 그 돈을 다 날려 버리지. 그러곤 제일 먼저 하는 일이란 다른 목장을 찾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 앞날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조지는 자신과 레니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다른 목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독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생쥐와 인간』에서 고독을 겪는 사람이 노동자 뿐만은 아니다. 켈리의 아내가 레니에게 말한다.

“왜 당신에게 말을 걸면 안 되죠? 내겐 이야기 상대도 없어요. 정말 외로워요.”

그러곤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열정에 서두르듯이 말을 쏟아 붓는다. 그녀는 자신의 고독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다. 캔디와 크룩스는 절름발이와 사회의 낙오자라는 성격이 다른 고독을 지닌 대표적 인물들이다. 캔디는 황금기가 다 지나 나이 들고,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게다가 한 쪽 손마저 잃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탔다. 사회가 불구자와 흑인을 외면하면서 그의 피부색깔과 추한 외모의 내면에 존재하는 지성은 하잘것없이 여기기 때문에 크룩스는 고독을 느낀다. 고독은 이 두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캔디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빼앗길 때까지 그 개에 의존하며 사는 반면, 크룩스는

머리 속에선 늘 분노로 들끓으면서 어쩔 수 없이 냉소와 굴종이라는 방어 벽을 친 채 살아간다. 스타인벡은 지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고독에 관한 어떤 위대한 이론도 추구하지 않고, 그저 고독의 실체를 설명하고 조명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 고독에 관한 그의 생각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이다.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온정과 교우는 음식이나 물만큼이나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고발

『생쥐와 인간』은 정치적 소설도 아니요 미국 사회를 비난하기 위해 쓰인 책도 아니다. 목장 노동자들은 한 달에 50 달러를 받고 음식도 잘 나오고 그들의 고용주도 사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도 『생쥐와 인간』을 인종차별, 노인에 대한 푸대접, 자신들이 써 뿌린 것을 수확해 보지 못하는 농장 일꾼들의 역경이라는 세 가지 폐해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는 고발소설로 여길 수도 있다.

크룩스는 인종편견의 단면을 잘 보여 준다. 그는 책을 즐겨 읽고 지적이며,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온정과 교우를 원한다. 그러나 어떤 선천적 잘못 때문이 아닌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크룩스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크룩스가 상냥히 말했다. “이제는 알 수 있겠지. 너에게 조지가 있고 그가 되돌아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네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자. 네가 흑인이기 때문에 인부 숙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카드 게임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고.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여기 앉아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 어두워지기 전까지 말편자 놀이

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엔 책을 읽어야 할 거야. 책은 전혀 쓸모없지. 사람은 가까이 지낼 누군가가 필요해.” 그가 애처롭게 말했다. “친구가 아무도 없다면 사람들은 미쳐 버리지. 누가 옆에 있는 상관없고 함께 하기만을 바라게 돼. 내말은, 내말은 말이야, 인간은 너무 고독하고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야.”

이 구절은 크룩스에게 위안과 교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인종편견에 대한 불만을 피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분명 이 구절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더 넓은 문맥에서는 이미 다루어졌던 고독이라는 주제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크룩스의 불만의 뿌리는 바로 고독에 있다. 그가 지닌 고독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관심의 중심은 고독 그 자체에 있지 고독의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쥐와 인간』에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나타나지만 의당 소설의 주제는 아니다. 편견과 차별은 고독이라는 주제의 큰 벽걸이장식을 이루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노인들이 어떻게 대접받는 지에 관한 또렷한 주제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캔디가 이런 생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는 노쇠하고 지쳐있고, 마치 목적을 다하면 버려지는 생명이 없는 기계처럼 자신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쓰레기 더미에 내버려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 캔디는 조지의 꿈이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여기고 그것을 붙잡으려 든다. 그에게 벌어지는 일의 잔혹함이 특히 다음 한 구절에 집약되어 있다.

“너도 그들이 오늘밤 내 개에게 한 짓을 봤지? 내 개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전혀 쓸모없다고 그러더군. 그들이 여기서 나를 쫓아낼

때 누군가 나를 총으로 쏘아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난 갈 곳도 없고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어.”

게다가 이런 불만은 평생 부려먹고 난 후 노인을 버리는 사회를 향한 것이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진짜 불만은 고독에 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고독으로 인해 크룩스는 냉소적이고 증오에 찬 사람으로 변하고, 캔디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다는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인종적 편견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에 사회의 잔인함에 대한 불만도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더 중요한 주제 고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소설에서 고발하고 있는 세 번째 영역은 고독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 캔디의 대사에 담겨 있다.

“나는 이 주변의 거의 모든 땅에 곡식을 심었어. 하지만 내게 아니었지. 수확을 해도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농장 일꾼들은 누구보다도 농지와 가깝고 심지어 땅주인보다 더 가깝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이들은 땅에 땀을 흘린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땅에서 생산한 것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캔디가 불만스러워하는 점이고, 또한 문학에서 오랫동안 자주 다뤄지던 주제이다. 14세기 영시 “농부 피어스”(“Piers Plowman”)의 작가인 윌리엄 랭런드(William Langland, 1331-99?)도 이런 불만을 이해하고 인정했을 것이다.

노동자

노동자가 소설 『생쥐와 인간』의 주제인지 아니면 그저 등장인물에 불과

한 지를 결정짓는 것은 다소 어렵다. 그러나 노동자가 등장인물이라고 한다면 스타인벡이 그들을 상당히 두드러지게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상당히 좁은 범위의 사회계층에 속한다. 목장 주인과 그 아들 켈리 만이 다소 상류층에 해당한다. 스타인벡은 노동자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목장인부에게서 찾을 수 있는 성격과 개성이 얼마나 다양한 지를 드러내고 있다. 조지의 재치와 충실, 레니의 우둔함, 슬림의 타고난 위엄과 지도력, 크룩스의 내면에서 자라는 증오에 찬 냉소주의, 칼슨의 잔인성, 위트의 피상적 성격, 그리고 캔디의 체념 등을 보여주고 있다. 스타인벡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불구자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묘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소한 일이고 중요한 것은 슬림을 묘사한 부분에 있다. 슬림은 타고난 지도자이며 상당한 위엄을 지닌 남자이다. 스타인벡은 슬림을 묘사함으로써 타고난 지도자와 권위 있는 사람은 어떤 사회계층에서든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고삐 하나로 여러 마리 말을 몰수 있는 슬림이 효율적인 굉장한 기술을 지닌 사내임은 분명하다. 스타인벡이 다른 많은 소설에서도 그러한 사람에 대해 찬탄하는 것처럼 보인다. 스타인벡의 작품에서는 실용적 기술을 지닌 사람이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높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미국의 또 다른 특징일 것이다. 서부 개척자는 적어도 전설에서나마 스스로 제 집도 짓고, 곡식 농사도 짓고, 또 가축의 새끼도 직접 받아내고, 농기계를 수선하고, 화약통도 만들고, 가축 가죽을 벗겨서 처리하며, 술을 직접 담는다. 그래서 현대의 건축업자, 농부, 의사, 농업기술자, 총포상인, 가죽무두질업자, 양조업자, 목수 등등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했었을 것이다. 옛날 서부의 영웅들이 없이 지낸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낡은 성경을 제외한 책들이다. 따라서 스타인벡의 슬림에 대한 찬

양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소설이 지닌 전통의 한 부분인 것이다.

성격묘사

일반 사항

스타인벡은 인물을 창조하는 데 남다른 기술을 지녔다. 그의 묘사는 간단하고 경제적이지만 또한 생생하고 설득력 있다. 그는 인물에 대해 신체 용모에 주로 의존하며 간단한 예비묘사를 하고 나서, 등장인물이 행동과 말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개성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스타인벡은 독자에게 등장인물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도 않고 등장인물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해주지도 않는다. 대신에 등장인물이 느끼는 두려움, 걱정, 희망을 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게끔 한다. 켈리의 아내가 주춤하는 레니에게 비밀을 털어 놓을 때 그랬듯이 조지와 캔디, 크룩스에게도 자신들의 내면 깊숙이 박힌 감정들을 털어 놓는 대사가 부여된다. 한편 켈리에게는 이런 대사가 없다. 그의 특징은 그의 행동과 다른 사람이, 특히 캔디와 조지가 그에 대해 하는 말에 의해서 드러난다. 칼슨이 캔디와 그의 개, 그리고 켈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독자들은 칼슨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두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슬림은 가장 복잡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절제가 잘 되어있는 남자여서 그가 조지나 캔디처럼 희망과 두려움을 모두 표현하게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슬림에 대해 말할 때면 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는 다른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그에 대해 알게 된다. 심지어 이 소설에서 가장 개연성 없는 인물인 크룩스와 켈리도 슬림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인다. 슬림의 말은 느리고 박자에 맞추듯 흐르면서 침착함과 권위를 발산한다. 또한 그의 행동은 결단력 있고 권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스타인벡이 직접 독자들에게 개입할 때는 슬림에 대한 그의

생각을 말하고, 소설 속에서 슬림에게 부여된 특별한 역할에 대해 밝힐 때뿐이다.

스타인벡은 신체묘사, 행동, 대사를 주요 묘사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소설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저자가 겨우 90여 페이지 안에서 많은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비평가들은 이런 묘사와 등장인물이 지나치게 생생하다며, 실제 목장에서는 스타인벡이 인부 숙사에 그려 넣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그 보다 더 평범한 사람들이 일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유도될 수 있는 결론은 인물 묘사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인데, 이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 위에서 간단히 설명된 인물 묘사의 방법은 본질적으로 사실적이다.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지에 바탕을 두고 그들을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스타인벡은 실생활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머릿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설가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들어가 볼 수 없는 인간의 머릿속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면에서 자칫 비현실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스타인벡은 자신이 그려내는 등장인물을 통해 그의 주장을 제시하려고 분명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그는 사람들은 주목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각각의 개인들은 독특한 성격과 나름대로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캔디의 묘사를 통해 노인들이 너무 쉽게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으며 노인도 본래 감정과 존엄성을 지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사실이 망각되고 있다고 스타인벡이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세대의 가장의 좋은 예가 바로 레니이다. 외모에서 드러나듯이 레니는 바보 멍청이지만 조지도 알고 있듯이 레니 역시 한 개인이고 인격체이고 인간

이다.

편의상 각 등장인물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독자들이 집단이라는 환경 안에 존재하는 분위기와 긴장을 전달하는 스타인벡의 중요한 기법이 드러나는 다른 영역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요컨대 스타인벡은 개인의 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단속에 속했을 때 나타내는 반응과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곳은 캔디의 개가 끌려 나가 총에 맞아 죽고 각자가 그 운명의 충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이 다.

조지

첫 번째 남자는 몸집이 작고 날렵했다. 그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끊임없이 눈동자를 움직이며 날카롭고 강한 인상을 지녔다. 작지만 억척스런 두 손, 가늘고 뼈만 앙상한 코 등등, 그의 신체의 모든 부분의 윤곽이 뚜렷했다.

조지와 슬림은 『생쥐와 인간』의 주인공이다. 조지는 총명하고 재치가 뛰어나며, 슬림의 말을 빌자면 ‘영리한 꼬맹이’이다. 이런 평가에는 조지가 자신이 지적하듯이 모순이 있다.

“만약 내가 영리하고 약간 현명했다라면 내 소유의 땅을 사서 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 거요. 내 땅이 아닌 곳에서 나는 곡식을 거둬들이느라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 말이요.”

조지가 왜 단순한 농장인부에 지나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저 경제적

인 데에 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목장을 살 수 없었고 『생쥐와 인간』에서 보여주는 세상은 지성 자체만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만약 그런 세상이었다면 크룩스 역시 보잘것없는 마구간지기가 아닌 자기 목장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조지가 목장인부로 남아 있는 다른 이유는 레니이다. 조지가 레니를 볼 봐야 한다면 목장을 전전하는 것이어야 말로 두 사람이 함께 붙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레니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커지게 되고 또한 평생직장을 갖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럼 왜 조지가 레니 곁에 머무르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지는 레니에게 꿈에 대해 얘기해 주는 만큼이나 자주 레니가 옆에 없다면 누리게 될 자유에 대해 말하곤 한다. 레니는 두 이야기 모두 외울 정도로 알고 있다.

조지는 다소 인정 많은 인물이다. 그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분노와 날카로움은 그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강요받아온 삶의 방식의 결과이며 레니를 돌보아야 하고 또 레니를 곤경에서 구해야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갈등의 결과이다.

분명히 조지는 레니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에 관한 의무와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에는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레니는 조지를 필요로 하고 조지가 없으면 길을 잃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지에게도 레니가 필요하다고 해도 사실이다. 조지는 사색가이다. 그는 주변의 모든 떠돌이 유목민 노동자들이 불안정하고, 고독하고, 무능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레니와의 교우는 고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게다가 그 교우를 통해 조지는 자신이 다른 많은 농장일꾼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슬림이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본 적 없어.”라고 말하듯이 조지와 레니 둘의 관계는 조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에게 차별성과 심지어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두 사람 스스로

이에 대해 모두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관심을 써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갈만한 다른 곳이 없다고 해서 술집에 앉아서 주머니를 떨어내 어선 안돼.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누군가 돌봐줘도 영원히 타락하게 될 거야. 그러나 우린 아니야.”

레니가 끼어들었다. “그러나 우린 아니야. 근데 왜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말야. 나한테 나를 돌봐주는 네가 있고 또 너한테 너를 돌봐주는 내가 있으니깐 그런 거야.” 레니가 기뻐서 웃었다.

조지가 선량하고 친절하고 의리가 있어서 레니를 보살펴주고 있긴 하지만, 둘의 관계를 통해 조지가 절실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지는 다른 사람의 성격을 잘 판단한다. 그는 켈리와 그의 아내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과 슬림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조지는 조용하며 인부 숙사에서 전혀 말썽을 피우지 않는 겸손하고 좋은 일꾼이다. 그는 청결한 생활을 한다. 몹시 갈망하는 농장을 사기 위해서 당구장이나 창녀촌에서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타고난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레니가 거품이 이는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자기 침상에 이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성격을 지녔다. 조지는 평화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레니에게 켈리를 해치우라고 말할 때 느끼는 일종의 쾌감을 거부할 수 없었다.

어떤 비평가들은 도덕적 성숙에 대한 능력의 측면에서 조지에 대해 말하면서 레니와의 관계가 그를 성숙시키고, 그가 도덕에 대해 더 생각하게 만들고, 도덕적 문제에 대한 그의 인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가지 면에서 조지가 성숙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원래 그는 레니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었다. 그러나 그런 장난이 얼마나 유치하고 경솔한 짓인가를 깨닫고 그만두었다. 레니에게 총을 겨누기로 한 결정에서 조지는 마침내 다른 인간의 운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도덕적 성숙과 같은 용어는 간단한 사안을 실제보다 더 복잡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점만으로도 혼란과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조지가 레니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적어도 그의 성격에 첨가될 수 있는 새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성숙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조지가 레니에게 총을 쏠 때 전에는 분리된 것으로 보였던 조지가 지닌 많은 특징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처음으로 하나처럼 보인다. 창녀촌에 대한 혐오와, 켈리가 장갑에 바셀린을 채우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입에 담기에도 더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지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번에는 진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레니가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의 도덕이다. 조지는 동정으로 가득차있다. 그리고 레니가 맞아 죽거나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보다 깨끗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지가 지닌 동정심 때문이다. 조지는 현실적이며 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회가 레니를 나누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조지는 책임감 있는 인물이다. 그는 레니를 농장에 데려왔고 그래서 처벌을 내리는 것도 그의 책임이다. 조지는 레니를 돌보느라고 자신을 희생해 왔다. 그가 레니를 죽였을 때 그는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 레니가 죽는 순간에도 그의 입에서는 꿈에 대한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얼굴에는 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가 죽자 그 꿈을 만들어낸 사람에 의해 꿈도 사라졌다. 『생쥐와 인간』을 연구하면서 스타인벡이 조지가 레니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 독자들에게 철저하게 암시를 주고 있다는 점을 종종 놓치게 된다. 레니가 결국 하게 될 일에

대한 단서가 독자들에게 많이 제공되고 있다지만, 조지가 할 일에 대해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그 단서가 충분하지는 않다. 조지가 레니에게 총을 쏘기 위해 도덕적 성숙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소설의 초반부에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도덕성의 파괴라는 말이 조지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기에 더 적당할 수도 있다. 총을 쏜 후 슬림과 떠날 때 조지는 거의 빈 조개껍데기와 마찬가지로였다. 그가 지닌 가장 좋은 특징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쏘아야만 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조지가 왜 캔디와 함께 농장을 사지 않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이는 다른 이야기이다. 그 꿈은 레니와 함께 죽었다. 아마 현실적인 조지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레니

그 뒤로 정 반대로 몸집이 크고 못생긴 얼굴에 크지만 흐릿한 두 눈, 넓고 축쳐진 어깨를 가진 사내가 걸어 왔다. 그 사내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마치 곰처럼 발을 끌었다. 무거운 두 팔은 허리 부근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추처럼 느슨하게 매달려 있는 듯 움직였다.

레니는 정신박약인 열간이였지만 슬림과 컬리의 아내가 인정하듯이 좋은 사람이다. 거대하고 힘센 그의 몸 안에는 사실 어린애 같은 마음이 담겨 있다. 그에게 비극이라면 마음이 몸을 어떻게 통제하는 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레니는 자기가 아끼던 생쥐와 강아지가 죽자 놀라고 화가 났다. 그 동물들이 아주 다치기 쉽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힘이 너무 세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다. 힘에 이어 가장 두드러진 레니의 특징은 그의 순진함이다. 그의 순진함은 아주 분명하고 투명해서 독자들은 그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지처럼 그를 향한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스타인벡은 동물에게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해서 레니를 묘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레니가 보여주는 인간성의 정도를 낮추지는 않고 있다. 야생동물처럼 레니의 몸과 마음은 복잡한 현대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 그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늘 주인이나 다름없는 조지에게 속박된 채 주인의 시야 안에서만 생활하는 길들어진 개처럼 사는 것이다. 그러나 레니가 아주 솔직한 것은 아니다. 소설의 시작부분에서 조지가 레니에게 화를 낸 것처럼 레니는 가지고 놀려고 동물을 숨긴다. 또한 조지가 이성을 잃어 레니의 귀를 치워버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안 레니는 조지의 죄책감을 이용한다.

레니는 유혹의 말을 회피했다. 그는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내가 필요 없다면 그저 그렇다고 말해. 그럼 난 저기 저 언덕으로 갈 거야. 저기 언덕에서 혼자서 살면 아무도 내게서 생쥐를 빼앗지 못할 거야.”

그 결과 레니는 그가 바라던 대로 조지로부터의 동정심을 얻는다. 또 다른 점에서 보면 레니는 교활하며 지각이 있다. 본능적으로 레니는 목장이 좋은 곳이 못된다는 것을 느낀다.

레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조지, 난 여기가 싫어. 여긴 좋은 곳이 아니야. 여기서 나가고 싶어.”

레니의 인물 묘사에서 겁먹었을 때 꼭 붙잡는 행동과 소설의 끝부분에서 레니가 보는 두 가지의 환영은 비난받아 왔다. 레니가 어떤 것을 붙잡는 행동은 소설 전체에서 세 번 나오는데, 위드에서, 켈리의 손, 그리고 켈리 아내이다. 레니와 같이 정신박약인 사람은 보통 겁먹었을 때 반대로 놔주는 경향이 더 짙다는 주장이 간혹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타당한 관점이 아니다. 스타인벡은 보통의 정신박약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한 사람이 어쩌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얻게 되고 그 반응에 의해 놀라서 무엇인가를 붙잡는다면 적어도 이것이 가능하다면, 독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된다. 레니가 보는 환상에 대한 다른 비난은 좀 더 타당하다. 이런 환상적 요소는 내용이나 분위기면에 있어서 소설의 다른 부분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다. 레니는 지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그래서 그가 두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스타인벡이 『생쥐와 인간』을 집필할 때 젊고 경험이 없어서 그 결과로 이런 환영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평가들이 말한다면 아마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강렬하게 독자를 감동시키고 동정심을 자아내는 인물묘사에 나타나는 사소한 결점에 지나지 않는다. 레니에게 가장 맞는 그에 대한 판단은 아마 슬림이 말한 대로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다.” 일 것이다.

슬림

키 튼 사내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구겨진 카우보이모자를 겨드랑이에 낀 채 길고 검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있었다. 다른 인부들처럼 그도 청바지에 짧은 데님 윗도리를 입고 있었다. 머리를 다 빗자 방으로 들어왔다. 그가 움직일 때 왕족이나 장인의 대가만이 가

질 수 있는 위엄이 배어나왔다. 그는 유능한 노새 몰이꾼이며 목장 일꾼들의 우두머리로서, 노새 열 마리, 열여섯 마리, 심지어 스무 마리를 선두그룹의 노새 뒤에 한 줄로 세워 몰고 갈수 있었다. 또한 마차 뒤쪽 노새의 엉덩이에 파리가 붙으면 노새를 건드리지 않고도 채찍으로 그 파리를 죽일 수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무게가 있고, 매우 속이 깊었기 때문에 그가 말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모두 말을 멈췄다. 그의 권위가 아주 대단해서 정치든 사랑이든 어떤 주제이건 간에 그의 말은 다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바로 노새몰이꾼 대장 슬림이었다. 그의 여윌고 모난 얼굴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아마 서른다섯이나 쉰 살이나 그쯤일 것이다. 그는 한마디를 하면 열을 알아들으며, 그의 느린 말투는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을 초월한 이해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의 크고 야윈 손은 사원에서 춤추는 무희의 손처럼 움직임이 섬세했다.



위의 구절은 『생쥐와 인간』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묘사 중에서 가장 길게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이는 스타인벡이 슬림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저 위에서 언급된 점들을 강조하고 새로운 점이 추가로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슬림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지 않는다. 슬림은 조지와 레니 사이의 끈끈한 정을 이해하고, 레니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 인물이다. 슬림만이 왜 조지가 레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며 조지가 그 일을 저질렀을 때의 기분을 이해해 준다. 조지는 일이 벌어지고 난 후 다음과 같이 꼭 언급되어야 할 말을 한다. “조지, 네가 해야만 했어. 분명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고.”

슬림의 인물묘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다. 슬림이 그렇게

기품 있고 위엄 있는 인물이라면 그가 목장 인부 숙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비평가들은 묻고 있다. 다른 비평가들은 슬림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말한다. 스타인벡은 슬림을 묘사할 때 노련한 정치가나, 훌륭한 교사, 또한 철학자를 경시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이런 묘사법이 비록 노련하기는 하지만 일개 목장 노동자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게 보일 것이다. 슬림은 고결한 마음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스타인벡의 욕망의 소산처럼 보이며,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성과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중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스타인벡의 운동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의 그런 운동은 분노의 포도에서 가장 훌륭하게 완성된다.

캔디

문이 열리면서 키 크고 어깨가 구부정한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청바지를 입고 왼손에 큰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캔디는 농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손을 잃었다. 그래서 지금은 잡역부로서 목장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신체적으로 불구이며 외롭고 버림받아 고통 받는 노인에게 벌어지는 일을 독자들에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캔디는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도 없고 그저 부질없는 말로만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를 꿈꿀 뿐, 비굴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엾은 노인이다. 이 소설에서 노인은 딱 두 번 다른 사람에게 용감히 맞선다. 한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켈리를 비난할 때이고, 또 한번은 켈리의 아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이다. 두 경우 모두 그의 저항은 오래가지 않고, 그를 더 애처롭게 만든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캔디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지 못하는지를 알게 된다. 캔

다에게 자신감과 원기를 심어주는 데 필요한 것은 단지 십 에이커 농장과 몇 마리의 동물이었다. 조지와 레니가 서로에게 의지하듯이 캔디도 개에게 의지한다는 점에서 이 노인과 개의 관계는 조지와 레니의 관계와 비슷하다. 개의 죽음을 통해 캔디가 인간적인 모든 느낌과 감정을 지닌 한 인간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점은 가볍게 무시되어서는 안 되듯이, 개가 총에 맞는 사건에서 소개되는 칼슨의 권총도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총이 소설의 결말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쓰이기 때문이다. 캔디의 개는 캔디가 농장에 대한 꿈에 합류하게 되는 데에 간접적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조지와 레니로부터 작은 농장에 대한 그들의 꿈을 들을 당시 인부 숙소에서의 캔디의 입지가 보장해주는 것은 그의 개의 죽음뿐이었기 때문이다. 캔디는 스타인벡이 노인과 약자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동정과 연민의 가장 대표적 예이다.

크룩스



크룩스는 자존심 세고 다소 냉담한 사람이어서 그의 방은 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의 몸은 휘어진 척추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눈은 움푹 패여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눈은 강렬히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야윈 얼굴에는 검은색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얼굴색보다 약간 밝은 색의 얇은 입술은 고통을 참듯 꼭 다물고 있었다.

캔디와 마찬가지로 크룩스도 스타인벡의 동정심의 한 예이며, 고독이 한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한 실례이다. 흑인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에서 크룩스는 흑인이며 동시에 지체장애자이기 때문에 이

중부담을 지니고 있다. 그가 반항하려 들자 켈리의 아내가 흑인은 백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라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를 목살해 버릴 때 그의 처지의 참담함이 드러난다. 스타인벡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면서 공평한 사람이기도 하다. 캔디가 크룩스를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듯이 다른 목장 일꾼들은 크룩스를 기분 나쁘게 대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두염 옆이긴 하지만 크룩스에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 크룩스는 소설의 전체의 삼분의 이에서만 등장하는데, 그의 역할은 독자에게 조지와 레니의 꿈이 그의 냉소주의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곧 파괴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크룩스는 이런 꿈을 이전에도 봐왔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다.

켈리

그 때 한 젊은이가 인부 숙소로 들어왔다. 갈색 얼굴에 갈색 눈동자, 그리고 팽팽한 곱슬머리를 한 마른 체형의 사내였다. 그도 목장 주인 처럼 왼손에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었고 곱이 높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켈리에게는 다른 결점을 보충할 만한 장점이 거의 없다. 그는 세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버릇없고 안절부절 못하는 젊은이다.

켈리는 몸집이 작은 대부분의 사람처럼 몸집이 큰 사람을 싫어해. 항상 덩치 큰 사람과 싸우려고 덤벼들지. 자기가 몸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덩치 큰 사람만 보면 눈이 뒤집히거든.

켈리는 한때 아마추어 권투선수로 성공했었지만 권투는 그의 강박관념이

되어 버렸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선수로 여길 만큼 그 증세가 심하다. 그는 젊은 자기 아내에게 외설스런 말을 건네기도 하고 토요일 밤이면 사창가를 찾는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비슷한 기분을 즐기려고 할 때면 그 자신에게는 이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아내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아내가 처신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허둥지둥 그녀를 쫓아다니는 것은 목장인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켈리는 무식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지략이라는 것도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레니의 천성이 이 소설의 비극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간수하지 못한 그의 무능력이 중국엔 비극을 야기한다. 레니의 천성과 켈리의 무능력 모두가 소설의 비극에 책임이 있다. 이 소설에서 켈리는 마치 악마에 가까운 사람이며, 가장 불쾌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인물이다.

켈리의 아내



그 여자는 짙은 루즈를 바르고 큰 눈에 짙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손톱은 모두 빨강계 칠해져 있었다. 머리카락을 소시지처럼 조그맣게 돌돌 말아 올린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면으로 된 평상복에 뒤축이 없는 빨간 슬리퍼 차림이었는데, 슬리퍼 등에는 타조 깃털로 만든 작은 꽃다발이 달려 있었다. “켈리를 찾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코맹맹이 소리에 금속성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켈리의 아내(이 여자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소설의 다른 인물과 마찬가지로 고독의 희생자로서 가엾은 인물이다. 그녀는 켈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반감으로 그리고 받기로 되어있는 할리우드에로의 초대장을 받지 못한 실망감에 그와 결혼해 버렸다. 그녀

는 남편이 따분하고 유쾌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바람난 여자였지만 악마는 아니었다. 또한 그녀가 이 소설에서 받는 처벌은 그녀가 저지르는 어떤 죄악도 능가한다. 그녀가 남자를 제대로 만났더라면 사랑스런 아내가 될 수도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 그녀는 목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이고, 인부숙사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켈리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인부들과 시시덕거리는 여자이다. 그녀의 행동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조차도 스타인벡의 동정심이 배어나고 있다. 죽음의 상태에서는 그녀의 얼굴에 새겨졌던 최근 경험이 깨끗하게 지워진 듯했고, 그녀는 어린 소녀처럼 사랑스럽고 순수하게 보였다.

켈리의 아내는 노란 건초더미에 반쯤 덮인 채 누워 있었다. 비열함, 음모와 불만, 관심에 대한 열망은 모두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아주 예쁘고 순진했고, 얼굴도 사랑스럽고 어려 보였다. 이제 그녀의 발그레한 볼과 빨간 입술로 그녀는 살아 있는 듯 보였고, 아주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 그녀가 그의 꿈을 파괴하려하자 “빌어먹을 창녀같은니!” 라고 반응을 보였던 캔디조차도 그녀가 건초더미 속에 죽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불쌍한 계집”이라고 중얼거리며 좀 더 애정 어린 반응을 보인다.

그 외 등장인물

목장주인은 ‘작고 땅딸한 남자’이다.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캔디에 따르면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가끔 무척 화를 내지만,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그는 크리스마스에는 일꾼들을 위해 위스키를 산다.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별한

것 같다.

칼슨은 ‘힘세고 먹성이 좋은 사내’이고, 목장일꾼으로 캔디의 개가 냄새난다며 싫어해서 결국 총으로 쏘아 죽이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조지가 레니를 쏘 때 사용한 총도 그의 루거 권총이다.

위트는 젊은 목장 일꾼으로 전에 목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잡지사에 보낸 편지를 발견한다. 위트는 켈리 아내가 살인당하자 보안관 대리를 데려오기 위해 읍내로 보내진다.

문체

문체란 작가가 단어나 구를 사용하는 방식, 또는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글을 쓰는 방식을 의미한다. 문체에는 어휘 선택, 문장 길이, 사용하는 은유와 직유, 대화체 사용, 서술 구절의 빈도와 내용 등과 같은 문체를 포함할 수 있다.

『생쥐와 인간』에서는 두 가지 문체가 나타난다. 하나는 서술적이고 강도에 따라서는 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구어체이다. 두 문체를 혼합해서 거의 완벽하게 거침없이 사용하는 것은 스타인벡이 이 소설에서 이룬 위대한 업적이다.

서술체가 성공하려면 많은 특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스타인벡의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특이한 은유와 직유에 관한 재능은 훌륭하다. 두 번째 특징은 스타인벡이 물뱀의 머리를 작은 잠망경 같다고 묘사할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처음 읽을 때는 이런 직유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인간에 의해서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잠망경은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기계의 일부분으로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강의 작은

연못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들어맞는다. 놀랍고 예상치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묘사되고 있는 것에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시각적으로도 두 이미지는 연관되어 있다. 똑바로 세운 뱀의 머리와 곧추선 채 조용히 물결을 가르며 잠망경은 상당히 유사하다. 잠망경이 잠수함의 눈이듯이 뱀의 눈이 머리부분에 있다. 잠수함은 죽음의 기계이다. 그리고 얇은 물가에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머리를 내밀고 있는 뱀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미지는 살펴보면 볼수록 더 적절하고 더 잘 들어맞는 것 같다. 이는 스타인벡이 등장인물들의 내면과 과거를 보는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주며, 또한 그가 자연은 인간을 품고 있을 때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보여준다. 조지와 레니가 서로 얘기 나누고 갈대가 흔들거리고 플라타너스 나뭇가지가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거릴 때, 물뱀이 물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스타인벡은 가끔 빛을 사용하는데, 특히 묘사하는 구절에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가빌란산 꼭대기의 불타는 노을빛은 이 소설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미지이며, 스타인벡은 또한 햇빛에도 매료되어 있다. 인부 숙소에서도 빛이 묘사된다.

아침 열 시경, 먼지 뿌연 햇살이 옆 창문으로 들어왔다. 햇살 사이로 파리들이 유성우처럼 빠르게 날아다녔다.

나중에 켈리의 아내가 문간에 서서 햇살을 가릴 때 이 햇살은 소설에서의 그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인부숙소에 있는 양철 깃을 씌운 전등은 목장 인부들의 인위적이고 천박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크룩스 방의 희미한 노란 불빛은 크룩스의 고통과 나약함을 나타낸다. 켈리의 아내가 죽은 뒤 더욱 부드럽게 햇간을 비

추는 햇살은 스타인벡이 분위기를 살리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서 스타인벡은 알맞은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자연이라는 배경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 켈리의 아내가 죽어 건초더미에 누워있는 동안에 비둘기 한 마리가 헛간 안으로 날아왔다가 밖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슬림의 잡종개가 살금살금 지나가다 죽음의 냄새를 맡고는 자기 보금자리로 들어가 버린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죽은 여자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녀의 육신이 이제는 그토록 갈망하던 평온을 찾은 빈 조개껍데기와 같다는 느낌을 고조시킨다.

스타인벡은 또한 모든 소리를 예민하게 구별할 줄도 알고 묘사에 색깔을 입혀서 현실감을 더할 줄도 안다. 어렴풋이 마당에서 들리는 말편자의 땡그렁거리는 소리, 아득히 멀리 큰길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헛간의 말들이 움직이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독자들에게 현장감을 제공하고 독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생쥐와 인간』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투리와 속어, 목장 인부들이 사용하는 구어로 쓰여 있다. 캔디가 알고 있는 유일한 형용사는 ‘상당한 (pretty)’ 뿐인 것 같다. 그리고 이(lice)도 때에 따라 ‘grey-backs’, ‘bugs’, ‘pants rabbits’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중부정이 많이 쓰였는데, 페이지를 명시하지 않고 그 예를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Ain't got no relatives nor nothing’: 이 구절은 아마 삼중 부정에 해당할 것이다.), “아무것도 쓰지마”(‘Don't spen' nothing’), “인부 숙사에서 빠져 나올 수 없어”(‘I can't swamp out no bunkhouses’), “그자들은 그런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거야”(‘they won't do nothing like that.’). 속어와 욕설도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책에서는 ‘and’는 ‘an’으로, ‘just’는 ‘jest’로,

'sat'은 'set'으로, 'ask'는 'ast'로, 'full of'는 'fulla'로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부분은 놀라울 정도로 읽기 쉽다. 대화는 활기 있고, 사실적이며, 종종 아주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리듬과 실체감을 담고 있다.

『생쥐와 인간』이 희극소설은 아니라할지라도, 스타인벡이 지나칠 정도로 사실주의적으로 그리고 있어 이 소설에서 유머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스타인벡이 농장일꾼들의 우두머리로서 인물 설정한 슬림의 첫 대사에는 희극적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다. 이같이 거의 황홀할 정도의 찬사 다음에는 슬림의 대사가 뒤따른다. “바깥이 더 밝군.” 이 구절로 인해 독자들은 아주 빨리 현실세계로 되돌아오게 된다. 캔디가 한때 목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에 대해 다소 재미있게 묘사하는 부분도 있고, 식사 후에도 손을 씻는 남자를 보고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하는 장면도 있다. 크룩스도 냉소적이긴 하지만 유머감이 있다. 캔디는 크룩스의 방이 아늑하고, 그래서 크룩스가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크룩스가 말했다. “창문 아래에는 두엄도 있지. 아무렴. 멋지고 말고.”

이 구절에는 강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다.

스타인벡의 두 가지 문체는 ‘장식적 은유’와 ‘사실적 실용 언어’로 표현되어 왔다. 그가 통제하지 못한 부분이 두 곳 있는데, 하나는 헛간에서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그려지는 구절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레니가 보는 환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감동적이고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글에 날카로운 현실과 신념을 혼합시키는 소설에서는 사소한 흠에 불과하다.

스타인벡의 희곡적인 문체

스타인벡은 희곡적인 문체를 구사한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다. 즉 『생쥐와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특히 그 문체에 있어서는 희곡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유사성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건의 많은 부분이 대화에 의해 진행되고, 소설 전체로도 장면이 여섯에 불과하고, 이 장면들은 무대 위에서도 쉽게 재생될 수 있는 것들이며, 게다가 등장인물도 몇 명 되지 않는다. 소설의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한 구절에서는 대체로 빛이 사용되었는데, 물론 빛은 연극연출가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장치이다. 스타인벡이 등장인물들을 그들의 외모나 말투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연극에 아주 잘 맞는다. 실제 이에 대한 예외로 희곡작가가 연출가와 배우에게 내리는 무대지시문에 의하여 슬림이라는 인물의 특징이—스타인벡이 슬림에 대해서 묘사하는 첫 구절에 나타난다—설정되었다는 말도 있었다. 슬림에 관한 이 구절이 보통 희곡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길다는 점만 빼면 무대지시문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스타인벡은 『생쥐와 인간』에서 말편자 부딪히는 소리, 말들의 움직이는 소리 등 음향효과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특히 조지와 레니가 목장에 도착한 첫 날 아침 광경, 목장 일꾼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일하다가 들어오는 장면은 연극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구절들이다. 동물을 무대에 세울 수도 없고 동물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없듯이, 연극에서 연출가가 청중들에게 큰 마차와 이를 끌고 있는 노새를 보여 줄 수 없다. 그 대신 연출가는 전통적인 무대장치를 이용한 음향효과를 통해 청중들에게 실제로 사람, 기계, 동물이 그려지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준다. 소설가로서 독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수 광경을 확인시켜주듯 묘사할 수도 있지만, 스타인벡은 소리로 바깥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는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마구들이 부딪쳐 쟁그랑거리는 소리와 짐을 무겁게 실은 마차의 차축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왔다. 멀리서 누구를 부르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마부, 어디 있어? 마부!” 그 다음에 들렸다. “망할 놈의 깔둥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이 소설은 제1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서 한 순간에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다는 점에서 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에서는 켈리의 등장, 제3절 캔디 개의 죽음, 제4절 캔디와 크룩스 그리고 켈리 부인 사이의 말다툼, 제5절 켈리의 아내의 죽음, 제6절 레니의 죽음이 그랬다. 이런 절정의 순간들은 연극 관객에게는 훌륭한 요소가 되며, 또한 아주 쉽게 연극무대에 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쥐와 인간』은 연극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으며, 이 소설이 연극으로 각색되어 성공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스타인벡이 의도적으로 희곡을 염두에 두면서 이 소설을 썼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소설이 아니라 희곡을 쓰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저 스타인벡의 타고난 문체가 발전함에 따라 희곡을 쓸 때 사용하는 기법과 많이 비슷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분노의 포도』와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희곡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비평가들은 이 소설의 연극적 문체의 특성이 아닌 긴장감과 흥분을 전달하기 위해 ‘희곡적’이라는 말을 다소 느슨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말 자체로는 크게 해로울 게 없다. 이 소설은 긴장감 있고 흥미진진하고 또한 연극적이긴 하지만, 시험준비자들은 이 말을 사용할 때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4부. 학습 지침

세부학습을 위한 지침

『생쥐와 인간』에는 다른 부분보다 더 상세히 학습해야 할 몇몇 특정 구절이 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 본 구절들도 이에 해당하고, 그 외 추가 구절은 다음과 같다.

제1절의 시작 부분(슬레대 남부 지역 묘사)은 스타인벡의 묘사기법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 준다. 또한 제6절의 시작 부분과 연계해서 학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자는 스타인벡이 후반구절에서 더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묘사할 때 도입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제1절은 중요한 세부묘사, 특히 조지와 레니의 인물 묘사와 이들의 꿈에 대한 서술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상세히 학습하여야 한다. 제2절의 27쪽(컬리의 첫 등장)은 극적인 순간으로 소설 줄거리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31쪽과 32쪽(컬리 아내의 첫 등장)은 컬리의 아내에 대한 세부묘사가 풍부해서 의미가 크다.

제3절의 38쪽에서 41쪽에 이르는 부분에서는 조지와 레니,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많은 점들이 소개되고 있고, 슬림에 대해서도 약간 나타난다. 46, 47쪽(캔디의 개를 총으로 처치하는 동안 기다리는 장면)에서는 스타인벡의 집단이라는 분위기를 묘사하는 뛰어난 기량이 발휘되고, 또한 글을 극적으로 쓰는 그의 천부적 재능이 드러나는 곳이다. 제4절 53에서 55쪽까지는 조지와 레니가 사고 싶어 하는 농장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려진다. 57쪽에서 60쪽에서는 또 한 번의 극적인 순간이 벌어진다. 즉, 레니와 컬리가 싸우는 장면이 그려지는 데, 여기에서 스타인벡이 액션 장면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얻을 수 있다.

캔디가 눈물을 터뜨리는 69쪽은 조지와 레니의 꿈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73쪽에서 켈리의 아내가 크룩스를 비굴한 노예로 비하시키는데, 이는 소설의 주제인 인종 편견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구절이다.

제5절의 처음 몇 단락 또한 스타인벡의 묘사기법과 효과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켈리의 아내가 레니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는 79쪽에서는 그녀의 개성과 성격에 대해서 많은 통찰이 이루어진다. 85쪽에서 캔디가 꿈이 깨진 것에 대해 불평하는 장면은 소설 전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슴에 사무치는 부분이다.

제6절은 비극이 최고조에 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 전체를 자세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세부학습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은 앞의 3부에서 다루었다. 물론 시험출제자를 가장 염두에 두는 수험자들은 독자들에게 과다하게 제공된 소설 결말에 대한 암시, 켈리 부인이 살해된 후 시간이 정지한 듯 그려지는 구절, 레니가 환영을 보는 구절의 일시적 일탈, 스타인벡의 두 가지 문체의 혼용과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슬림이라는 인물 설정 등에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3부에서 논의된 모든 주제들은 한두 차례 시험 문제로 채택되었던 것인 만큼 모두 상세히 학습해야 한다.

인용구절

인용구문이 수험자들이 제시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험답안이라면 인용구절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시험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만족시킬만한 인용구 목록을 만드는 좋은 방법은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문구를 적은 다음, 아래와 같이 주어진 구절을 첨가시키

는 것이다. 이 목록은 『생쥐와 인간』에 대해 나온직한 모든 질문에 대비한 인용 어구를 망라하게 될 것이다. 시험을 볼 때 소설책을 들고 가도 된다면 책의 해당 인용구문들에 밑줄을 그어라. 그렇지 않다면 가장 유용한 구절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마칩표까지 정확하게 외우도록 하라. 틀린 인용구문에 대해서 벌칙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변호사가 거짓 증거를 제시했을 때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제1절(pp. 7-20)

덩치 큰 그의 동료가 담요를 내려놓고 몸을 내던지듯 엎드려 초록빛 연못의 물을 마셨다. 말처럼 물에 콧김을 내뿜으며 한참을 꿀꺽꿀꺽 마셨다.

위 구절은 스타인벡이 레니를 동물의 이미지와 연관지어 묘사하는 좋은 예이다.



레니는 슬픈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생쥐들이 너무 작아서 그래.” 레니가 변명했다. “난 만지작거리기만 했어. 근데 내 손가락을 깨무는 거야. 난 그저 머리를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죽어버렸어. 요것들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야.”

스타인벡은 레니의 힘과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의 무능력에 대한 경고를 소설의 초반에 집어넣고 있다.

“맙소사, 만약 네가 혼자 있다면 누군가 코요테로 잘못알고 널 총으로 쏠 거야.”

이는 또한 레니에게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한 전조이기도 하다.

제2절(pp. 20-37)

“그는 아주 좋은 일꾼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짐짝 400개를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레니의 굉장한 힘을 보여주는 다른 예

“글쎄, 켈리는 매춘부랑 결혼한 것 같아.”

켈리 아내의 성격을 보여주는 좋은 구절

문간으로 들어오는 사각형의 햇살이 차단되자, 두 사내 모두 힐긋 쳐다보았다.

켈리 아내의 본성을 암시하는 상징적 이미지

“그리고 장담하는데 그 사람 날달걀이나 먹고, 무슨 묘약이라도 주문하고 있을 거야.”

켈리의 이상야릇함에 대한 조지의 혐오가 이 소설에 다소 희극적인 요소를 가미시키고 있다.

슬림은 조지를 훑어보고 그의 마음까지 간파하였다. “같이 일하러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가 생각에 잠겼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망할 놈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무서워하기 때문일 거야.”

목장일꾼들이 느끼는 고독에 관한 슬림의 의견

제3절(pp. 37-61)

“혼자서 목장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봐왔어. 전혀 쓸모가 없어. 그들은

재미도 못 느끼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엔 모두들 비열해지더군. 늘 씹
질이나 하려고 들고 말야.”

목장일꾼들이 느끼는 고독에 관한 조지의 의견과 고독이 사람들에게 미치
는 영향

“맴소사, 완전히 어린애 같잖아, 그렇지?”

레니의 성격을 파악한 슬림의 말

레니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놈들이 토끼를 건드리기만 해도
그 망할 놈의 목을 부러뜨릴 거야. 내가...내가 막대기로 후려 칠거야.”
레니는 앞으로 기르게 될 토끼를 귀찮게 할 수 있는 앞으로 기르게 될
고양이에게 겁주듯이 으르렁거리다 마음을 가라앉혔다.

스타인벡이 ‘앞으로’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작은 농장
을 얻는 게 조지와 레니에게 얼마나 먼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쯤 되자 켈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움크려 들었다. 발버둥치던
것도 약해졌다. 켈리는 레니의 짐승같이 큰 손에 주먹을 붙잡힌 채 비
명을 계속 질렀다.

레니의 힘이 갖는 끔찍한 면의 좋은 예

제4절(pp. 61-75)

크룩스는 그를 꿰뚫어 보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해줄까? 그들은
너를 정신병원에 넣을 거야. 개처럼 줄로 너를 묶을 거라고.”

이런 일이 레니에게 벌어질 까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조지가 레니에게 충
을 쏘게 된다.

“모두가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 땅을 원해. 남이 것이 아닌 자기 소유의 것 말이야.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아무도 자신을 내쫓을 수 없는 그런 땅을 원하지.”

캔디의 꿈에 대한 이유를 표현한 것임

크룩스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비하했다. 개성도 자아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가 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 마님,”

이는 인종 편견이 주는 굴복감과 그 위력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제5절(pp. 75-88)

오후 햇살이 헛간 벽 틈으로 들어와서 건조위에 밝게 부딪쳤다. 공중에는 파리가 웅웅거리며 날아다녀 나른한 오후가 느껴졌다.

스타인벡의 빛과 소리를 이용한 묘사의 좋은 예

“좋아.” 그가 말했다. “저 깜둥이한테 엽총이 있어. 그걸 갖고 오게, 칼슨. 녀석을 보면 기회를 주어선 안돼. 배를 쏘라고. 그럼 몸을 구부리며 쓰러질 거야.”

이 구절은 켈리의 사악함을 보여준다.

“아니야.” 조지가 말했다. “아니야, 레니. 난 화나지 않았어. 화난 적도 없고 지금도 화나지 않았어. 그걸 너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조지가 레니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과와 같다.

소재의 효과적인 배열

시험답안지를 쓰는 데는 많은 기본 원칙들이 적용된다. 첫째, 관련성의 원칙이다. 몇 달이든 몇 년간이든 책 한권을 다 공부한 후에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질문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아는 것을 모두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책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곧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정보에서 관련된 사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기본 원칙은 계획이며, 세 번째는 답안지에 항상 결론을 써야하고 모든 측면의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쪽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글은 별 효과가 없다. 출제자에게 왜 당신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들이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문학시험에는 두 가지 유형의 질문이 있음을 기억해두자. 첫 번째는 사실에 관한 것인데, 어떤 인물이 주어진 대사를 하는지, 한 구절이 책의 어느 부분에서 인용되었는지, 그리고 줄거리의 기본 내용이 무엇인지 등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하는 유형이다. 이런 질문의 답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논술 형태인 두 번째 유형의 질문에서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어떤 때는 정답도 오답도 없고, 그저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관점들만 있을 수 있다. 이중에 정답이 될 만한 가능성이 적당히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정답이라고 선택해서 제시한 답으로 그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도, 당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사용하는 힘과 기법에 의해 점수를 얻게 된다. 자유로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예와 그 답안의 예가 아래에 주어졌다. 『생쥐와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고발소설이라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주장을 펴서 시험관이 바로 틀렸다고 처리해 버릴만한 답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학생들은 세 가지의 가능한 논점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주장하면서도 세 논점 모두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쉽다. 그러므로 시험관은 제시된 관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자신의 관점을 납득시키고 지론을 펴는데 사용하는 기법에 근거해서 점수를 매긴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한 논점을 반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논점이 더 정당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더 설득력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이 균형잡힌 판단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쥐와 인간』은 고발소설이 아니다. 다른 특성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상당부분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답은 상당히 그럴싸하고 심지어 훌륭하기도 하다. 이는 그 학생이 자신이 답하고 있는 한 부분뿐만 아니라 질문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 성숙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관에게 보여주고 있다.

답안지 계획

효과적인 답안지 작성 계획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학생들이 연습을 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 단계가 5, 6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전체 시험시간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쥐와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고발소설이라 할 수 있는가?’를 예로 들어, 이에 대한 답을 쓰는 계획의 네 단계는 아래에 예시된다. 아래 제시된 계획은 설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실제 시험에서는 훨씬 간단하게 적는 형태로 네 가지 단계를 마칠 수 있다.

(가) 대강의 아이디어 적기

처음 제목을 보아서 제목에 대해 생각하면 답지에 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아직 조직하거나 특정한 순서로 적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메모를 해두어야 한다.

스타인벡은 분노의 포도에서처럼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깊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짐

다음에 대한 고발

노쇠한 것(캔디와 그의 개)에 대한 푸대접

인종편견(크룩스)

자신들이 기르고 수확해낸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고독

목장 인부들은 상당히 대접받는 것처럼 보임

정신박약자(레니)에 대한 대접에 항변

소설의 주체는 조지와 레니이지 고발이 아님

불가피한 이야기의 결과

목장 주인에 대해선 불만 없음

컬리에 대한 불만

소설에서 자연 묘사의 역할

『생쥐와 인간』은 장편소설이 아니라 중편소설에 가깝다.

조지와 레니의 농장에 대한 꿈이 소설에서 진짜 요지

소설에 많이 나오는 동정심, 소설의 요지일까?

소설이 지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다.

(나) 대강의 아이디어를 단락으로 편성

위에서 메모한 내용은 학생이 질문을 보면 처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나타낸다. 이는 답을 계획하는데 있어 아마도 가장 좋은 내용을 제공하게 된다. 비록 메모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쓴 글은 학생들이 그냥 앉아서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 쓰게 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글이 나올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는 꽤 괜찮지만 논리적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지 못하고, 반복적이고 관련이 없는 논지를 펴는 글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이 논점에서 저 논점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서 읽는 이가 글의 정확한 내용을 따라갈 시간도 없는 글이 되기 쉽다. 다음 단계는 대강의 아이디어를 단락으로 묶고 두 번 언급되거나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는 빼버린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내포한 의미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도 있다. 이 아이디어를 가장 적합해 보이는 곳에 집어넣어라. 발견된 요지들로부터 도출된 결론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결론은 아래와 같이 계획서에 이탤릭체로 표기하면 더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다.

(1) 소설은 다음을 고발하고 있다

- 노쇠한 것(캔디와 그의 개)에 대한 푸대접
- 인종편견(크룩스)
- 자신들이 기르고 수확해낸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 고독

(2) 정신박약자에 대한 대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항의하고 있지 않다.

컬리에 대한 불만, 그러나 이는 한 개인에 대한 불만에 지나지 않다.

목장 주인에 대한 불만이 없다.

목장 인부들은 상당히 잘 대접받는 것처럼 보인다.

(3) 실제로 정치적이지도 지적이지도 않은 소설임;

이 소설을 고발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런 소설인 것처럼 들리게 한다.

또한 자연에 관한 소설이다.

(4) 이 소설은 고발소설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정심의 소설이다.

조지와 레니 그리고 그들의 꿈에 관한 소설이지 고발소설이 아니다.

이들의 꿈이 파괴되는 것은 항의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스타인벡은 비평을 독자의 몫으로 남기고 있다.

(다) 단락을 정리하고 결론쓰기

위의 단락개요를 보면 처음에 적은 메모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점은 생략되었다. 대강 메모할 때 적어 놓은 것 중 첫 번째 아이디어(스타인벡은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글이 주요내용에서 빠졌지만, 도입부분에 쓰일 수 있다. 소설의 결말이 불가피한 내용일까 하는 논점도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쥐와 인간』이 장편이냐 중편이냐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삭제되었다. 주어진 질문에서는 이 소설을 장편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소설의 제목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를 묻는 것은 분명 아니다. 놀랄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이 진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것을 써내려간다.

모든 사실과 아이디어가 모이고 단락으로 분리된 후에야 학생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알게 된다. 그제야 학생들은 뒷받침할 근거가 가장 많은 관점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문학시험에서 성적이 저조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직감적으로 한쪽 면에 대해 주장하기로 결정해서 그 주장을 한참 전개한 이후에야 다른 쪽 관점에 대한 근거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중간에 논점의 방향을 바꾸는 논술은 절대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답안지는 항상 글쓴이의 결론에 유리한 관점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끝마쳐야 하고, 다른 관점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의견은 답안지의 첫 부분에 제시해야 한다. 위의 글쓰기 계획을 만든 사람이 이 소설은 고발소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는 단락을 제대로 맞게 쓴 것이다. 서론 단락은 자신이 찬성하지 않는 관점에 대해 다루고, 나머지 단락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나가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 주제문 쓰기/ 근거 찾기

실제로 답안지를 쓰기에 앞서 각 단락에 주제문장이 있어야 한다. 주제문은 단락의 첫 문장으로 주제 또는 단락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몇 단어로 나타낸다. 주제문을 통해 읽는 이는 그 단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글쓴이는 재빨리 그리고 쉽게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가 제목과 관련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제문은 유용하다. 주제문이 제목의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라면 또한 그 단락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단락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답안 작성의 마지막 단계는 답안지에서 주장할 요지를 뒷받침하거나 증명 또는 예증할 만한 인용구를 찾거나 암기하는 것이다. 때때로 책의 구절을 많이 암기한 학생이 오히려 녀을 잃어 인용구 외에 다른 내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시험답안을 작성하기도 한다. 좋은 답은 논점을 뒷받침

하기위해 인용을 하겠지만, 전체 내용의 삼분의 이가 원문을 베낀 글이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글이다. 시험관이 직접 원문을 읽어보아도 그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생쥐와 인간』의 모범 문제에 대한 견본 답안 네 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답은 위에서 제시한 계획과정에 맞게 작성했을지도 모른다. 주어진 예들은 대답 가능한 답에 불과하며 반드시 정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견본 답안

『생쥐와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고발소설인가?

아직도 많은 비평가가 스타인벡의 최고작이라고 꼽는 『분노의 포도』(1939)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상황을 비판하는 고발소설이라고 생각했다. 『생쥐와 인간』에 고발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분노의 포도』와는 사뭇 다르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고발소설의 범주로 분류될 수 없다.

소설 『생쥐와 인간』은 노인들에 대한 푸대접, 인종적 편견, 자신이 생산한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고독을 고발하고 있다. 캔디와 그의 개는 노쇠함을 나타내는 예이다.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까지 살게 된다면 쓰레기처럼 내버려진다고 스타인벡은 말한다. 캔디가 인부숙사를 청소할 수 없을 정도로 늙으면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난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얻을 수 없어.”라고 캔디가 말하듯이 말이다. 캔디의 개는 총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그 개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캔디의 고통은 더 늘어났다. 스타인벡은 노인들이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고귀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같다. 흑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목장주인

이 불손한 말을 퍼붓고 고향을 지르긴 해도 그리 끔찍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크룩스가 인종적 편견의 희생자임은 분명하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통로가 주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불구의 몸이기도 하다. 켈리의 아내가 그에게 위협하며 그 당시 백인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던 흑인에 대한 지배력을 드러냈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만다.

크룩스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하했다. 개성도 자아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 마님.”

스타인벡은 분명 크룩스가 받고 있는 대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캔디도 땅을 일구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 주변의 거의 모든 땅에 곡식을 심었어. 하지만 내게 아니었지. 수확을 해도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조지가 다음과 같이 말하듯이 고독과 그 고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혼자서 목장을 전전하는 사람들을 봐왔어. 전혀 쓸모가 없어. 그들은 재미도 못 느끼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엔 모두들 비열해지더군. 늘 씹질이나 하려고 들고 말이야.”

그러나 독자들은 모든 농장의 일꾼들은 혼자 다니고 조지와 레니처럼 짝지어 다니는 것은 거의 보기 드문 일이라고 듣는다. 켈리의 아내가 불행을 초래하는 레니와의 대화를 하게 되고 사내들과 시시덕거리도록 된 것은 바로 고독감 때문이다. 그리고 캔디와 크룩스를 괴롭히는 것도 이 고독감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고발하고 있고, 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곳도 있다. 실제로 정신박약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고 있다. 사실 조지와 크룩스는 레니가 당국에 넘겨진다면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레니가 감금되지 않으면 그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레니를 유폐시키길 바라는 것을 비난하기도 어렵다. 조지든 사회이든 누구도 레니를 다룰 수 없다. 레니에 대한 처우에 대해 항의한다기보다 오히려 레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슬픈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조지가 켈리를 ‘개자식’이라고 부르고 아무도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켈리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이는 소설 전체의 색깔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한 개인에 대한 불평에 불과하다. 분명한 불평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목장주인에 대한 항의도 실제로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는 ‘상당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은 분명 아니다. 목장 일꾼들은 꽤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조지, 레니, 슬림, 칼슨, 위트 아무도 임금이나 음식, 잠자리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 당시에 월급 50달러라면 불충분한 액수가 아니었다.

『생쥐와 인간』은 정치 소설도 아니고 지식인 소설도 아니다. 대부분 고발소설이 사회나 정치제도를 비난하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이 소설을 고발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치 그런 소설인양 보이게 만든다. 이 소설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많은 고발과 불만의

대상들이 방치되어 있다. 소설제목이 지닌 가장 강력한 특징은 그 소설의 성격을 기술한다는 것인데, 고발소설에서는 이런 특징의 중요성이 부적절하게 인식될 수도 있다.

『생쥐와 인간』은 실제로 동정심을 나타내는 소설이며, 자신들이 자유롭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곳인 그들만의 작은 농장에 대한 두 사람의 꿈을 다룬 이야기이다. 동정심과 꿈이 『생쥐와 인간』의 전반에 나타나고 작가로부터 가장 감동적이고 강력한 구절을 불러내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은 꿈과 동정심에 관한 소설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은 고독감이 아니라, 늙고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고독한 사람들을 향한 작가의 연민에 대한 자각이다. 스타인벡은 고독과 근심이 깨끗이 사라진 죽은 켈리 아내의 얼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연민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비열함, 음모와 불만, 관심에 대한 열망은 모두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아주 예쁘고 순진했고, 얼굴도 사랑스럽고 어려 보였다.

캔디가 마침내 꿈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도 연민이 생겨난다.

그의 눈은 눈물에 가려졌고 그는 뒤돌아서 힘없이 헛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손이 잘려 나간 손목으로 뺨뺨한 턱수염을 문질렀다.

동정심이 필요 없는 슬림과 동정심을 받지 못하는 켈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요 등장인물에게 동정심이 풍겨 나온다. 소설속의 꿈은 조지, 레니, 캔디와 크룩스 네 사람과 관계되어 있지만 크룩스에게 영향을 준다고 여

겨진다면 수천 명의 농장일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엔 짐을 지고 머릿속엔 그런 빌어먹을 생각을 품은 채 농장에 오는 것을 봐왔어. 수백 명이 왔다가 금방 가버리지. 모두들 작은 땅 한 조각을 생각하지. 그러나 그 중 어느 누구도 땅을 갖지 못하더군.”

『생쥐와 인간』은 고발소설이 아니다. 이는 연민의 소설이며 비극적인 꿈을 꾸는 두 남자에 관한 소설이다. 고발을 한다는 것은 삶에 관해 평하는 것이다. 『생쥐와 인간』은 독자들에게 인생의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평은 독자의 몫으로 남기고 있다.

스타인벡이 『생쥐와 인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희곡적인’ 문체를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생쥐와 인간』은 스타인벡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아주 성공적으로 연극극본으로 각색되었고, 드라마 비평가 상도 받았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이 소설이 희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은 장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않지만 여섯 개의 개별적인 절로 구분되어 있고, 각 절은 쉽게 연극의 장면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각 장면을 위한 무대장치는 실연되는 연극용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샐리너스 강의 연못을 배경으로 한 첫 절과 마지막 절은 배경막과 조명으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인부 숙사와 헛간의 장면은 무대위에 쉽게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열명인데, 연극 등장인물로는 적절한 숫자이며 모두 별 문제가 없다.

아마도 이는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우연일 것이다. 『생쥐와 인간』이

거의 연극용으로 쓰였다고 할 정도로 스타인벡이 상당히 희곡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사건이나 인물묘사의 많은 부분들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스타인벡은 소설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등장인물로 하여금 독자들에게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슬림의 경우는 예외인데, 스타인벡은 슬림에 대해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다. 다른 경우는 대개 짧게 신체적 특징을 소개하며, 작가가 연출자를 돕고 안내하기 위해 극본에 첨가시키는 정도로 한다. 그러면 인물의 성격이 행동과 대사를 통해 분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관객들에게 거의 직접 말할 수 없는 연극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다. 각 인물의 성격은 한두 가지 신체적 특징에 의해 드러나고, 이런 특징들을 통해 관객들은 곧바로 인물들을 구별하고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조지는 체구가 작고 레니는 크다. 칼슨은 배가 크고 캔디는 손목이 잘려서 없다. 그리고 크룩스는 등이 굽었고 흑인이다. 킬리는 머리카락을 보면 알 수 있고, 그의 아내는 성적 매력과 젊음, 목장 주인은 굽이 높은 장화로 특징지어 진다. 위트는 걸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은 곡물 자루를 나르는 사람처럼 걷는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스타인벡이 거의 연극용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특히 각 절의 절정을 나타내는 기법과 암시에서 더욱 그렇다. 스타인벡은 묘사를 할 때 빈번하게 빛과 소리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일요일 오후였다. 말들은 쉬면서 남은 건초 다발을 씹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말들은 발을 구르더니 나무로 된 여물통을 치고 고삐사슬을 흔들며 댔다. 오후 햇살이 마구간 벽 틈으로 들어와서 건초위에 밝게 부딪쳤다. 공중에는 파리가 웅웅거리며 날아다녀 나른한 오후가 느껴

졌다.

빛은 현대 연극에서 가장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이고, 스타인벡이 세세히 그리고 있는 음향도 마찬가지로 쉬울 것이다. 연극에서 실제 말을 무대에 등장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소설인 『생쥐와 인간』에서도 독자들은 말들을 보지 못하고 대신 소리로 듣기만 한다. 살아 있는 동물이나 대형 기계도 쉽게 무대위에 올리지 못한다. 조지와 레니가 목장에 도착한 첫 날 인부들이 일터에서 돌아오는 장면에서는 마치 스타인벡이 이에 대해 고려했던 것처럼 보인다.

마구들이 부딪쳐 쟁그랑거리는 소리와 짐을 무겁게 실은 마차의 차축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왔다. 멀리서 누구를 부르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마부, 어디 있어? 마부!” 그 다음에 들렸다. “망할 놈의 감동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독자들이 실제로 보지도 않고도 어떻게 소리만으로 농장 일꾼들의 귀가, 농기구 그리고 마당의 광경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주목하라. 스타인벡의 극의 절정 배열은 실제 이 소설을 극본으로 각색하는 데에 눈에 떨 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 소설의 독자들은 원할 때면 언제나 책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연극을 보는 관객들은 공연이 행해지는 동안은, 또는 적어도 막간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극장을 떠나선 안 된다. 그러므로 극작가는 연극이 공연되는 동안에 관객들이 과도하게 흥분되지 않게 해야 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이 있으면 다음 시간은 긴장이 풀려야 관객들이 한숨 돌리고 다음 절정에 대비할 수 있다. 극본의 전통적인 구조 형태는 각 장면에서 조금씩 절정을 증강시키

다가 결말에서는 극의 최고조에 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가 바로 스타인벡이 제1절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1절에서는 배경이 설정되고 두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다. 이 소설의 제2절에서는 컬리에 의해서 두 번의 절정이 일어나고, 제3절에서도 캔디의 개의 총살과 컬리의 손이 으스스리는 사건이라는 두 번의 절정이 일어난다. 제4절에서는 절정은 컬리의 아내가 크룩스를 짓밟을 때이고, 제5절에서는 컬리 아내의 죽음, 제6절에서는 레니의 죽음이 절정이다.

그러므로 『생쥐와 인간』에서 사용된 많은 기법과 특징들이 연극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은 순전히 희곡 같은 소설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희곡적이라는 것은 그저 스타인벡의 문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소설에 대한 그의 접근법이다.

『생쥐와 인간』에 결점이 있는가?

『생쥐와 인간』에는 장점을 지닌 다른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결점을 지니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 중 첫 번째로 스타인벡은 레니가 컬리 아내를 죽이게 되고 그도 죽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서투르게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다. 스타인벡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너무 많은 단서를 던지고 있고, 그래서 최종 사건으로의 전개가 어려우면서 어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툴다고 평가받았다. 분명 초기의 절에서는 아주 많은 암시들이 나온다. 제1절에서 독자들은 레니가 생쥐를 쓰다듬는 것을 좋아하고, 또 생쥐를 죽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쥐들이 너무 작아서 그래.” 레니가 변명했다. “난 만지작거리기만

했어. 근데 내 손가락을 깨무는 거야. 난 그저 머리를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죽어버렸어. 요것들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야.”

제1절에서 조지는 레니에게 혼자 있게 되면 코요테로 오인되어 총에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한다. 독자들은 조지가 레니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야 할 장소를 계속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레니의 켈리 아내에 대한 동경과 그녀의 레니에 관한 관심, 그리고 그의 강아지의 죽음, 워드에서의 일에 대한 조지의 설명, 레니가 몹시 흥분해서 켈리의 손을 움켜쥐는 일 모두 미래의 사건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레니가 켈리의 아내를 죽였을 때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서 이 소설의 장점이 아니라 결점이 된다. 만약 암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독자들은 레니가 저지르는 일의 신빙성을 의심했었을 것이고(그의 방식대로 움켜쥐는 일은 평범한 특성이 아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었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은 레니가 일을 저지를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과연 언제 저지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강렬한 암시로도 긴장감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다.

대체로 레니의 살인과 죽음이 스타인벡에 의해 기묘하게 또한 전혀 어색하거나 서투르지 않게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 스타인벡이 몇 가지 잘못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서 독자들이 레니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역시 맞는 말이다. 사건의 결말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니와 켈리 아내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레니는 여러 차례 그녀가 예쁘다고 말하고, 그녀도 “좋아요, 힘센 아저씨. 다음에 얘기 나누죠. 난 힘센 남자를 좋아해요.”라고 레니에게 말한다. 문제는 켈리의 아내가 아니라 켈리로부터 더 직접적으로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심지어 켈리의 손이 뭉개지는 사건이 무마된 이후에도 켈리는 여전히 그 사건을 이용해 레니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했다. 켈리의 아내가 무고한 레니에게 강간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 비슷한 일이 워드에서 레니에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켈리의 아내가 크룩스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해 왔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결말은 몇몇 비평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예언되지 않는다.

비평가들이 『생쥐와 인간』의 결점이라고 꼽는 다른 부분은 소설 마지막 부분의 두 구절에 있다. 하나는 레니가 켈리 아내를 살해하고 마구간을 떠난 바로 직후에 나오는 구절이다.

종종 그러하듯이, 순간이란 정지했다가 계속 유지되다가, 그리고는 순간 보다 훨씬 긴 시간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순간보다 훨씬 더 훨씬 오랫동안 소리도 멈추고 움직임도 멈췄다.

이 시적인 구문은 소설 나머지 부분의 현실적이고 구어로 가득 찬, 공상적 요소라고는 전혀 없는 문체와는 맞지 않는다는 평을 받아왔다. 레니가 환영을 보는 구절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레니의 머릿속에 키작고 뚱뚱한 나이 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두꺼운 블록렌즈 안경을 쓰고 주머니가 달린 큼지막한 줄무늬 면으로 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반듯하고 깔끔했다.

이 클라라 아주머니의 환영이 레니의 목소리로 말하고, 그녀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거대한 토끼의 환영도 레니의 목소리를 빌어 말한다. 레니의

머리 속으로 들어 가보는 상당히 용감한 시도이지만 설득력은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스타인벡이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이같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영은 독자들의 믿음을 억지로 끌어내고 있다. 레니는 혼자서 말하는 데에도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정신적 재능만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믿기 어려워 보인다. 그 환영은 레니의 인물묘사에 약간의 애수를 더해주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를 이해하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사소하게 비난받았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조지가 레니에게 충을 쓸 필요가 없었다, 슬림은 목장의 인부숙사에서 볼 수 있음직한 인물이 아니다, 스타인벡은 사회낙오자와 불구자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이런 것들이 이 소설의 결점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오점이 아닌 사소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독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비난을 많이 받는 두 가지 부분을 보면, 하나는 결말로의 사건전개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레니의 환영이 빈약하다는 것인데, 이는 스타인벡이 『생쥐와 인간』을 집필할 당시 비교적 경험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슬림은 『생쥐와 인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

슬림은 검은 머리에 키가 큰, 농장 일꾼들의 우두머리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여러 마리의 말이나 노새를 고삐 하나로 몰 수 있는 마부이다.

조지와 함께 슬림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독자들로부터 거의 무조건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그의 말은 인부들 사이에선 마치 법처럼 받아들여지고, 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타인벡은 ‘그의 위엄은 아주 대단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치든 사랑에 관해서든 지 간에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켈리 조차도 슬림을

존경하는 듯하다. 슬림과 같은 인물 하나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켈리, 크룩스 심지어는 칼슨과 같이 비교적 불유쾌한 인물들 모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

슬림은 조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끌어내기 때문에, 또한 소설의 다른 인물에 대한 그의 의견이 독자들에게는 지식과 위엄을 겸비한 사람이 내놓는 의견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슬림은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스타인벡은 슬림을 이용해 독자들에게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독자들이 등장인물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지는 슬림에게 말하면서 워드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워드에서의 사건내용은 독자들에게 들려주어야 하지만, 슬림과 같은 인물이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는 사실감 있게 전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조지는 자신과 레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이 지닌 동정심과 지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독자들이 클라라 아주머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 조지가 레니와 함께 다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도 이 대화를 통해서이다.

조지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그에게 위안을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도 슬림이고, 켈리에게 레니가 그에게 한 일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도록 확약을 받아 내는 이도 슬림이다. 슬림은 조지와 마찬가지로 레니가 살인을 저지른 후 총살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조지에 대한 그의 지지는(조지가 총을 쏜 후 슬림이 한 말; “조지, 자네가 해야만 했어. 분명 자네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고.”) 또 다른 기능을 충족시켜 준다. 독자들은 아마 레니가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도록 당국에 넘기는 것이 더 인간적인 것이 아닌 지 궁금해 하며, 조지가 한 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슬림과 같이 권위를 지닌 인물이 조지가 한 일을 믿고 지지해준

다는 사실은 독자들이 그 사건에 대해 계속 동정심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스타인벡은 슬림을 이용해서 독자들의 레니에 대한 생각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 레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슬림은 “그는 무례한 사내가 아니야.”라고 레니를 옹호한다. 이 말을 하면서 슬림은 안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안심시키고 있다. 레니는 정신박약에 위험할 수 있는 남자였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이 소설은 레니에 대한 독자들의 어떤 동정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레니가 사악해 보이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그가 자신이 해를 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런 동정심은 금방 사라졌을 것이다. 슬림의 대사는 판단이 존중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독자들로부터 레니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슬림이 너무 이상적이고 인부숙사와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이야 어떻든지 간에 슬림은 스타인벡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대표한다는 데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슬림은 생각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숙련노동자를 소중히 여겼다. 그는 『생쥐와 인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등장인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려 주고, 독자의 등장인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질문

1. 『생쥐와 인간』이 얼마나 개연성이 없는가?
2. 칼슨, 켈리의 아내, 위트가 출연하는 부분들을 논하시오.
3. 스타인벡은 어떻게 독자들에게 레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하고 있는가?

4. 켈리는 이 소설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5. 스타인벡은 켈리의 아내를 용서하고 있는가? 비난하고 있는가?
6. 『생쥐와 인간』에서 스타인벡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기법은 어떤 것이 있나?
7. 스타인벡이 『생쥐와 인간』에서 두 문체를 혼용하는 것에 대해 논하시오.
8. 스타인벡이 사용하고 있는 대화체와 구어체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9. 『생쥐와 인간』의 주제는 무엇인가?
10. 『생쥐와 인간』이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겠는가, 비관적이라고 평가하겠는가?
11. 『생쥐와 인간』이 ‘동정심의 소설’이라는 데에 동의하는가?
12. 왜 조지가 레니에게 총을 쏘았나?
13. 슬림의 묘사가 설득력 없고 이상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하시오.
14. 땅 한 뼨을 갖는 꿈이 조지나 레니와 같은 농장 노동자에게 강한 매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를 쓰시오.
15. 『생쥐와 인간』에는 실생활에 가깝게 그리고 있다고 보기에 는 사회낙오자, 신체장애자, 특이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16. 『생쥐와 인간』의 고독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하시오.
17. 『생쥐와 인간』이 ‘지역적 소설’의 면을 지니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 지 설명하시오.
18. 스타인벡이 『생쥐와 인간』에서 폭력 장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논하시오.

이 주해서의 저자에 대해

이 책의 저자 마틴 스티븐(Martin Stephen)은 업핑엄 학교, 1)리즈대학교, 2)세필드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그는 현재 3)헤일리베리 학교의 사감으로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뉴욕 시리즈의 다섯 편의 책을 썼으며, 일차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시에 관한 책을 최근 마쳤다. 그는 또한 예술, 민속 음악에도 취미가 있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민속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
- 1)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요크셔주 리즈에 있는 공립 종합대학교
 - 2) 세필드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
영국 잉글랜드 사우스요크셔주 세필드시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
 - 3) 업핑엄학교(Uppingham)/ 헤일리베리 학교(Haileybury College)
영국의 사립 기숙사 중등학교

참고문헌

- 강주현, 『강주현의 영어번역 테크닉』, 국일미디어, 2002.
- 박영순, 『동시통역 통번역깨기』, 백산출판사, 2003
- 안정효, 『번역의 테크닉』, 현암사, 1996.
- 최정화, 『통역의 실제』, 신론사, 1989.
- 최정화, 『통역번역입문』, 신론사, 1998.
-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넥서스, 2001.
- 하워드 최, 『현대구어영어사전』, 시사문화사, 1995.
- Cecilia Wadensjö, *Interpreting as Interaction*, Longman, 1998.
- Danica Seleskovitch,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translated by Stephanie Dailey and E.Norman McMillan, Pen and Booth, 1978.
- Douglas Robinson, *Becoming a Translator*, Routledge, 1997.
- Martin Stephen, Notes on *Of Mice and Men*, Longman · York Press, 1980.
- Michael Swan, *Practical English Usage*, 2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Richard A. Spears, *NTC's American Idioms Dictionary*, 2nd Edition, NTC Publishing Group, 1995.
-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2nd Edition, HarperCollins Publishers, 1995.
- Collins Cobuild English Usage*, HarperCollins Publishers, 1993.
- Webster's NewWorld Dictionary*, 3rd College Edition, Prentice Hall, 1994.

Essence English-Korean Dictionary, 5th Edition, 민중서림

Si-sa Academy English-Korean Dictionary, 시사영어사



후기

2년 동안의 통역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생활이 내게는 농부의 삶과 같았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 풍성한 수확을 위해 맹렬아래도 마다않고 김매고 거름을 주듯이, 나 또한 통번역사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부단히 노력했다. 1학기에는 기초가 부족한 탓에 영어 지문 하나를 읽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고, 모자란 청취력을 키우기 위해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오디오 테이프를 듣고 다녔다. 부족한 실력 탓에 수업시간에 느꼈던 긴장감과 좌절감 그리고 자괴감은 나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격려, 동기생들과의 스터디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제 부끄럽지만 통·번역학 석사학위논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7년 가을 CNN청취강좌를 수강할 때 영어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가르쳐주시고, 지금은 지도교수로서 나를 믿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원보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언제나 좋은 말씀을 베풀어 주신 김재원 교수님, 늘 격려와 동기를 불어넣어 주신 박경란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논문을 읽고 심사해 주신 영어교육과의 변종민 교수님, 송일상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지금은 휴학을 했지만 1학년 때 스터디 파트너였던 오진숙, 스터디 파트너이자 언니처럼 도움을 많이 준 이수아,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 내내 동시통역 연습을 함께 했던 김수아, 김미옥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통역대학원에 입학하라고 권했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 오성철과 부모님, 그리고 엄마가 공부하느라 잘 돌보지 못했는데도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들 준수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